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May 11, 2017 Vol. 577

JAMA와 사우스베이목사회가 함께 국가 기도의 날에 참여했다.

## 동양선교교회 김지훈 목사 청빙

### 박형은 담임목사 후임으로 청빙 투표

동양선교교회가 박형은 담임목사의 후임으로 이 교회 부목사인 김지훈 목사(39)를 청빙하기로 했다. 김 목사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문화심리학과를 졸업한 후 소명을 받아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을 공부했다. 이후 덴버의 일리프신학교를 거쳐 현재는 클레어몬트신학교에서 박사과정 중이다.

동양선교교회에서는 새가족부와 교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높은뜻정의교회(오대식 목사)에서 부목사로 시무했다.

김지훈 목사

동양선교교회는 김 목사 청빙을 놓고 오는 21일 임시공동의회를 연다.

2011년부터 동양선교교회를 섬겨온 박형은 목사는 뉴저지초대교회로 부임하며 오는 5월 21일 공식적으로 이임한다.

김준형 기자

## 남가주 한인, 미국과 한국 위해 간절히 기도

### 제66회 국가 기도의 날 동참

남가주 한인들이 5월 4일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을 맞이해 주님세운교회에서 연합기도회를 열었다. 제66회를 맞이한 이번 국가 기도의 날은 "For Your Great Name's Sake! Hear Us, Forgive Us, Heal Us!"란 주제 아래 열렸으며 미 전역 4만 7천여 곳에서 기도회가 열린 것으로 추산된다. 남가주 한인교계에서는 JAMA와 사우스베이목사회가 기도회를 주최했다.

4일 오후 7시 30분 강순영 목사(JAMA 대표)의 사회로 시작된 기도회는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의 설교를 포함해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한인교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나와 기도를 인도했다.

기도회는 3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제1부에서는 미국의 회개와 부흥, 가정과 학교, 교회와 문화를 위해, 제2부에서는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 장관, 연방대법원과 사법부, 연방의회와 주의회, 군 지도자,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시장 및 공무원들을 위해 기도했다. 제3부는 특별히 한국을 위한 기도로 진행됐다. 대통령 선거와 국가 안보, 통일, 북핵 문제, 한국교회 등을 위한 기도가 이어졌다.

남가주 교계를 대표하는 목회자, 평신도 리더들이 이번 기도회에서 기도했다.

이 가운데 미국 대통령을 위해 기도를 인도한 김기동 목사(OC교협 이사장)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한기형 목사(미주성시화운동 상임회장)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종교자유 회복을 이뤄가고 있다. 행정부 지도자들도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운을 뗀 후, "미국의 현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이제 우리 한인 자녀들이 미국의 지도자가 되길 기도하자"고 했다.

특히 이번 기도회에서는 최근 북핵에 대한 미국의 압박, 한국의 안보 위기, 대선 등이 맞물리면서 그 간절함이 더했다. 이날 참석한 250여 성도들은 손을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미국과 한국을 지키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했다.

## 트럼프 대통령 종교자유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종교의 자유' 행정명령에 대해 "종교의 자유에 관한 지난 10년의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등 긍정적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종교의 자유를 다루는 법률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할 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도록 연방정부에 지시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환영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리버티카운슬의 매트 스타버 회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가 보호받고 신장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는 물론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했다. 또 퍼스트리버티 인스티튜트의 바이크 베리 변호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행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신장하고 보호하고 있다. 사법부가 이에 맞는 지침을 내리길 원한다"고 했다. 법무장관은 연방정부에 그 지침을 하달할 수 있다는 게 베리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이번 행정명령이 오바마 행정부 때의 특정 정책을 완전히 바꾸거나 전혀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사법부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가져온 오바마 정책들을 '중지시키기' 시작했다고 해석했다. 다만 사법부가 모든 연방 기관에 적용되는 대규모 지침을 내릴지, 아니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몇 가지 지침만을 내릴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가정연구위원회 토니 퍼킨스 회장은 "이번 행정명령을 비판하는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 '믿음의 사람들이 더 이상 표적이 되고 괴롭힘을 당하거나, 침묵을 강요받아선 안 될 것'이라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그의 발언은 매우 뛰어났으며 용감한 것이었다"고 했다.

베켓펀드의 법적 자문을 맡고 있는 에릭 라스바하는 "이 행정명령은 교회의 정치 참여나 정치적 발언을 금지한 존슨수정조항의 적용을 완화시킨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혜진 기자

"예수영맥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 (818)518-0033

ASE CERTIFIED 나라정비
나라오토덴트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월~금:8am~6pm, 토:8am~5pm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323.734.4881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및 자선,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 위치: GATEWAY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게이트웨이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
■ 등록마감일: 7월 15일(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6월 1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 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S.EDU
FOR MORE INFORMATION VISIT : WWW.GS.EDU

# 대한민국 미래 준비하며 통합된 새로운 가치 끌어내 달라

##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독교계 다양한 축하 메시지와 당부 전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한국의 주요 교계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께 바라는 글'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한기총 직무대행 곽종훈 변호사 및 임원 일동 명의로 발표됐다.

한기총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을 충심으로 축하드리며, 국민의 선택을 한 마음으로 존중하는 바"라며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국민대통합과 경제회복을 이루고, 기독교 가치관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내외 경제적 위기 상황, 북핵 문제 등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꿈을 주고, 인구 노령화에 대비한 정책들을 구체화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통합된 새로운 가치를 끌어내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어느 때보다 높은 기대와 함께 우려도 있음을 인식하고 수많은 난제들을 슬기롭게 해쳐나가기를 바란다"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으로 인한 탄핵 정국으로 국론이 사분오열된 상태에서 지난 9개월간 국가 리더십의 공백과 극단적인 국론 분열사태를 초래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론 분열과정에서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경쟁자를 동반자로 끌어안는 포용의 정치, 협력정치의 대로를 열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가슴에 새기고 모든 이들을 품고 포용하는 자세로 믿음직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전 국민적 관심 속에 치러진 선거는 끝났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온 국민은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 약속했던 공약들을 기억하며 지켜볼 것이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국민의 편에 서는 대통령, 작은 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통령, 그럼으로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기대하며 하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는 "그동안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실망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여 선거 중에 제시한 공약대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위해 힘써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라. 동성애, 종교, 이념 등에 관련하여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동시에 이와 관련하여 성급한 관련법 제정으로 다수의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역차별 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교회언론회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적폐청산'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프레임 아래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패와 무능을 청산하고, 국가다운 국가를 세울 것이라는 주장으로 선거에 임하여,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냈다"며 "그런데 국민적 지지는 문재인 당선자의 정책의 중요성보다는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와 무능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국민들의 지지는 언제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그러므로 선거기간 중에 쏟아낸 정책공약을 잘 실천하고, 외교와 안보 등 다방면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국민을 국민답게 하고, 사람들의 존엄성을 지켜가는 정책을 펼쳐가기를 기대한다. 관련해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독교계와 양심 있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동성애 옹호정책' 이나 '차별금지법' 등의 정책 시도는 가정과 사회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삼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의 심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국민들도 국가의 바른 정책에 대해서는 협조하고 협력해야 한다. 우리 기독교도 국가의 발전과 국가적 안녕을 위해서라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제14회 북한자유주간 "내부로 정보 유입이 북한 자유의 길"

제14회 북한자유주간이 4월 23일부터 워싱턴 DC에서 일주일간 진행됐다. '북한 정권 붕괴와 평화 통일 준비'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행사는 첫째날인 23일 워싱턴DC 메모리얼 공원 6.25 참전용사 기념탑을 찾아 헌화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둘째날인 24일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 수용소 내의 인권 유린 실상을 알리는 한편, 이에 대한 대처 방안과 함께 북한 정권 붕괴 이후 수감자를 구출하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25일은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 앞에서 강제 북송 중단을 호소하는 촛불집회가 진행했다. 이 집회 참석자들은 2002년부터 수집된 강제북송자의 명단을 하나 하나 부르면서 이들의 송환을 위해 기도했다. 26일에는 조지타운대학교에서 북한 고아 구제 포럼이 디펜스포럼 재단 수잔 솔티 대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탈북자 임혜진, 박정오 씨 등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7일에는 내셔널 프레스 센터에서 '평화 통일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 내부로의 꾸준한 정보 유입이 가장 효과적인 북한의 자유와 평화 통일의 길"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이 토론회에는 이정훈 북한인권대사와 탈북자 허광일 씨, 최정훈 씨, 박상학 씨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정훈 북한인권대사는 북한의 자유와 관련, "북한은 내부의 정보가 철저히 차단된 체제라는 특성을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북 라디오 등 외부의 정보를 실제 북한 동포들에게 유입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자 출신으로 현재 북한인권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정훈 씨와 박상학 씨는 "대북 라디오 방송을 비롯한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 낼 실질적인 행동을 위해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청되며 미국과 한국 정부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자들은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교체를 위해서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 통일 토론회 발제자들과 이번 제14회 북한자유주간을 준비한 관계자들이 북한 자유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했다.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목회가 행복해지길 원하세요?

기독일보 주최로 김상덕 목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목회 성경에서 그 길을 찾다" 모임에 남가주 목회자들을 초대합니다.

"목회를 하며 힘들고 낙심 되는 일들이 얼마나 나를 짓눌렀는지 모릅니다. 김상덕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목회를 배우며 '행복한 목회'를 정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행복하니 가정이 행복해지고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목회가 이렇게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 깨닫게 해 주신 귀한 모임에 목회자분들을 초청합니다. – 한인소망교회 윤 목 목사

강사: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개척 및 35년 목회

•일시 : 5월 18일(목) 오후 2시~5시
•장소 : 기독일보(621 S. Virgil Ave. #260, Los Angeles, CA 90005)
•회비 : 없음
•문의 : (310)715-9902, (213)434-1170

*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 미리 예약해 주세요.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제107기 제자훈련지도자 세미나가 열렸다.

# 제자훈련 통한 교회 갱신과 부흥 전수

## 국제제자훈련원 제107기 CAL 세미나

제107기(미주24기) 제자훈련지도자(CAL) 세미나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5월 1일부터 6일까지 개최됐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남가주사랑의교회 노창수 목사를 비롯해 다양한 목회자들이 강사로 참여해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 갱신과 부흥을 전수했다.

올해는 약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등 다양한 민족 지도자들도 참석해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을 배우는 등 그 열기가 뜨거웠다.

국제제자훈련원은 이번 제자훈련지도자 세미나를 마친 직후인 8일부터 11일까지는 역시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이번 세미나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제15기 제자훈련 체험학교를 열고 이론과 실제를 통합하는 웍샵을 계속했다.

# 사우스베이목사회 정기 월례회 열어

사우스베이목사회 회원들이 월례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했다.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가 5월 기도회를 11일 토랜스선한목교회에서 열었다. 회장 윤목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도회는 김현수 목사(토랜스선한목자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김선익 목사가 렘1:4-10을 본문으로 "부르심"이란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김선익 목사는 "예레미야를 부르신 유다의 상황과 오늘 우리 목회 상황은 같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핍박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면서 "부르심의 사명을 다하는 목회자들이 되자"고 말했다. 설교 후 윤목 목사의 인도로 사우스베이 지역과 교회, 미국과 차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 총무 안병권 목사가 광고하고 최학량 목사(새창조교회 원로)가 축도함으로 기도회를 마쳤다.

한편, 사우스베이목사회원인 나주옥 목사가 섬기는 울타리선교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디즈니홀에서 후원음악회를 연다. 이번음악회는 홈리스 선교를 위한 예배당 마련 기금으로 사용된다.

문의) 213-819-3300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가 예배를 마친 후 기념촬영했다.

# 미주성결교회 총회장 취임 감사예배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회장 김회창 목사)가 지난 2일 오전 연합선교교회(이상복 목사)에서 미주성결교회 제38회 총회장 이상복 목사와 부총회장 최경환 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전 총회장 송증복 목사가 "네 발의 신을 벗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전 총회장 고남철 목사는 "한 지방회에서 동시에 총회장과 부총회장이 배출된 것은 처음"이라고 축하했다.

한편, 남가주교역자회는 오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교역자 수련회를 여는 등 소속 목회자들의 친교와 연합을 이어갈 예정이다.

# 아름다운 대화 기술 배우세요

여천기 박사

여명미 박사

본지와 ABC 상담대화교육원이 공동으로 "아름다운 대화 기술" 강좌를 연다. 오는 5월 16일 본지 컨퍼런스룸에서 열리는 이 강좌에서는 여천기 박사와 여명미 박사가 강사로 나선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평신도, 주부 등 누구라도 참석이 가능하며,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목회자, 사역자,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강의는 성경적이며 효과적인 대화법을 배우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매우 알찬 강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대화 기술, 인간 관계 갈등을 해소하는 대화법 , 분노 표현법, 경청의 기술 등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강사 여천기 박사는 정신과 의사로 파운틴밸리병원, 산타아나정신과병원, 성조셉병원, 웨스턴메디컬센터 등에서 일했으며 UCLA, UC 얼바인에서 교수 등을 역임했다. 여명미 박사는 이화여대 의대를 졸업한 후 도미해 임상병리학 전문의로 일했다. 푸른초장의집을 설립하고 이사장과 소장으로 섬겼으며 2009년에 ABC 상담대화교육원을 설립해 현재까지 대표로 섬기고 있다. 이번 세미나의 참가비는 30달러다.

한편, 이 세미나 후 5월 25일부터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화 기술과 관련한 전문 지도자를 양육하는 강좌가 4차례 걸쳐 개최된다. 20시간 강의를 수강하면 대화지도자 수료증도 발급된다. 이 과정은 교재와 점심 식사를 포함해 총 200달러다.

이 외에도 본지는 남가주 교계를 섬기기 위해 다양한 세미나를 열고 있다. 매달 첫째 금요일마다 토브성경원전연구소 원장인 강신권 목사를 초청해 '남가주 목회자를 위한 원전강해' 시리즈 세미나를 열고 있다.

또, 오는 18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는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를 초청한 가운데 '행복한 목회 성경에서 길을 찾다' 2번째 세미나가 열리게 된다.

문의) 213-739-0403

장소) 621 S. Virgil Ave. #260
Los Angeles, CA90005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17〉

# 아프리카의 소금이 되게 하소서(2)

이상훈 목사
주비젼교회 담임

우간다의 김세현 선교사와 그 아내인 노미정 선교사 그리고 막내아들 준형이. 이렇게 세 식구가 두 아들을 이 곳에 남겨두고 떠났다. 그들을 파송하려던 교회가 다른 지역을 요구했지만, 김 선교사는 주님과 우간다를 약속했기에 그 교회와는 결별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선배 선교사들이 말했던 'faith mission'을 작정하고 그 땅으로 갔다. 현재 그는 미국 C&MA 소속 선교사다.

선교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를 들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내는 창조사역이다. 언어도 모르는 자가 그 땅에 도착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려하는 이들이 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는 이들의 앞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이미 다 준비된 상태다. 다만 그 선교사만이 나중에 깨달을 뿐이다.

우간다의 리라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한 전도사역. 처음은 원주민과 접촉하고 교제하고 친구로 만드는 일을 했다. 전도를 하면 복음에 반응을 하는 영혼들이 그 땅에 가득한 것에 감사와 감동을 멈출 수가 없었다 한다. 마을의 이장 집을 빌어 마당에 지붕 천막으로 그늘을 만들고 그 안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여 〈예수님의 일생〉 영화도 보여주고 성경도 가르치고 설교도 하며 며칠간 그렇게 집회를 하면 놀랍게도 교회가 이루어진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이 생기고 예배를 즐거워하며 타고난 음악 감각으로 노래하며 춤추며 신명나게 예배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가는 곳마다 그렇게 되니 그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해야 했다. 현지인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 인격과 신앙심이 깊은 지도자를 골라 짧은 시간에 지도자 교육을 시키고 목사로 임명한다. 이렇게 현지인 교회의 목사가 만들어진다. 신학교의 전문 교육을 가르칠 수 없는 선교지의 현실이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엄청나다. 전문 신학지식은 없으나 그들은 복음 전도의 열매가 하루에도 십수명씩 맺어진다. 일류, 이류 신학교를 저울질 하는 이곳의 교회와 목사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선교 사역은 너무도 창의적이고 끝없이 다양하다.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 소수 부족들이 그 속에 있어서 그들을 양육하며 그들 부족 언어로 된 성경을 만들어야 했다. 부족어 성경 번역 사역, 또 원주민들이 교인들이므로 다같이 공동의 생계를 이어가야겠기에 염소를 키우는 것,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 등등 그들의 생활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선교사가 하면 창의적 선교 사역이 되는 것이다.

현지인들이 사는 지역이 갈수록 넓어지기 때문에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간다. 그곳에도 마을이 있는데 마실 물줄기가 없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우물파기다. 몇백 불, 조금 더 깊으면 1-2천 불 정도의 비용으로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주민들이 평생 물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마을이 된다. 그곳에서 우물 하나는 사막의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다.

김 선교사는 이렇게 교회 개척과 주민 봉사, 노 선교사는 주일학교와 가정 방문 등의 사역을 나누어서 하여 말 그대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쁘고 고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계속〉

김세현 선교사가 한 마을에 우물을 개발하고 물을 공급하는 모습

● 제이슨 송 칼럼

# 실패를 딛고 전진하기(5)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이번에는 실패에 따르는 두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수동적 자세(passivity 내지 inactivity)를 다뤄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두려움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현실로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두려워하면 할수록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라이트 형제에 대해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1903년 12월 17일, '키티혹크'란 비행기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비행에 성공한 윌버와 올빌 라이트 형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훌륭한 과학자나 유명한 발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항공에 관해 가장 선도적인 발명가는 사무엘 랭리라는 수학 및 천문학 교수였습니다. 랭리는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의 총책임자로 지내기도 했기에 매우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에 성공한 같은 해 10월과 또 12월 초, 랭리도 많은 사람 앞에서 두 차례 비행 실험을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언론은 5만 불이란 거금을 사용했지만 실패한 랭리를 가차없이 비난했고, 랭리는 결국 항공에 관련된 모든 실험을 접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그런 결정을 내린 뒤 불과 며칠 후에 라이트 형제가 키티호크를 성공적으로 날게 했습니다.

랭리와 라이트 형제의 차이는 뭘까요? 랭리는 포기했지만, 라이트 형제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도 수십 번, 수백 번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 앞에 포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 계속 도전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랭리같이 받아들입니다. 즉, 실패가 트라우마로 연결되고, 결국 꿈을 접게 하며,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고, 현상유지에 연연하거나, 심한 경우 후퇴하고 위축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가요?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패하고 낙심하고 자아연민에 빠져 무력히, 그저 대충 살라고 오셨습니까?

물론 믿는 사람도 고통을 받으며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매우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린 모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계속, 평생 눌려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실패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학생을 종종 접합니다. 사실, 교육이란 것 자체가 반복을 통해 그릇된 접근방법 및 해결방법을 수정하고 올바른 생각과 방식을 통해 문제를 풀어 정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은 거의 매일 학교에서 새로운 내용,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접합니다. 이런 과정을 어려서부터 제대로 인식하고, 실패를 거부하기보다 실수와 실패를 통해 실력을 쌓아가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생은 새로운 과제나 문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게으름을 피우거나 남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거나 부모의 기대를 위해서만 공부하면 학생은 실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면 아예 피하려고만 합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수동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실패를 너무 심각하게, 감정적으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점이며, 또 실패했다는 이유로 "나는 실패자"란 딱지를 붙이고 살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그들을 위해 어른인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라미라다 가든 꽃집
La Mirada Garden Florist
Flowers For All Occasions
Serving OC and LA Counties since 1969
라미라다 가든 꽃집은 35년 넘는 경험, 노하우, 자신감, 그리고 새로운 감각의 꽃으로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꽃집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개업식 그리고 모든 이벤트를 아름다운 꽃과 서양란, 각종 화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 배달 해 드립니다.
www.lamiradagarden.com
lamiradaflorist@gmail.com
Tel. 714) 521-0901, 800) 645-1114
14794 Beach Blvd., City of La Mirada, CA 90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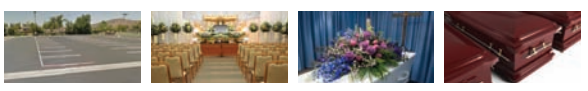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이 사 장 : 오병익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리스장의사가 커뮤니티의 미래와 함께합니다
리스장학생 모집

리스장의사가 반이민 정책에 힘들어 하는 서류미비자를 비롯한 모든 한인 학생과 부모님을 위해 리스장의사와 같은 작은 기업들도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것을 알리고자 장학금을 준비 했습니다.
목사님, 신부님등 사회지도자들의 추천장과 학생 본인의 현재 상황, 꿈과 희망을 담은 한글 자기 소개서를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심사를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 한 학생당 $500, 20명에게 총 $10,000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접수자격 서류미비자를 비롯한 한인 학생
이메일접수처 HR@leesmortuary.com
접수기간 4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발표 6월 5일 개별 통보
지급일시 6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지급장소 리스장의사 City of Orange 본사
홈페이지 www.leesmortuary.com

최저가격 보장제
▪ 유족과 같은 마음으로 리스장의사도 함께합니다. 하지만, 장례는 현실입니다
▪ 지금은 무한 경쟁시대, 최소 10% 이상 더 저렴한 비용을 약속드립니다
무료출장서비스
▪ 고인의 교회, 자택에서 장례식을 치루실 수 있도록 출장서비스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타 장의사의 채플비용을 절약하시면서 고인과 지인들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1000대 동시주차 규모의 넓고 편리한 파킹 / 아름다운 채플 / 깔끔하고 안락한 분위기
시카고 스미스 코코란
185 EAST NORTHWEST HIGHWAY, PALATINE, IL 60067
아틀란타 리장의사
4067 INDUSTRIAL PARK DRIVE NORCROSS, GA 30071
24시간 한국어 문의
(714) 469-1040
Fax (714) 333-4916 351 N Hewes St. Orange, CA 92869
Since 1966
리스장의사
Lee's Mortuary FD1164

# 느헤미야의 사명 의욕

## 느헤미야 1:1-11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 하가랴의 아들입니다. 본문은 아닥사스다 왕 제이십년 기슬르월(12월)에 느헤미야가 수산 궁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수산은 옛날 에돔의 수도였는데, 바벨론에 속했다가 다시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백합이 많아서 이름을 수산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 수산궁은 왕들이 별장처럼 사용하던 곳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라는 사람이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그들에게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고 전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승낙을 받아 학사 에스라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신앙회복을 시도하면서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때가 BC 457년이었습니다. 에스라 4장을 보면 에스라가 와서 유대인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운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재건을 위해 애써오는 중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새가 훼방을 놓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로 쑥대밭이 된 예루살렘에서 마치 군주처럼 행세하면서 유대인들을 착취하며 행세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에스라로 인해 그들의 입지가 어려워지자 아닥사스다 왕에게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궁의 소금을 먹는고로 왕의 수치 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고하오니 왕은 열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훼파됨도 이 까닭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필역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서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라는 고소의 글을 올립니다.

이에 왕이 보낸 글은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의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 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매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에스라가 유대인들과 함께 쌓아올린 성벽마저 허물고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게 된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을 흠모하는 영적인 갈망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정열이 심령에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3월까지 넉 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생활을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며 회개역사를 서둘렀습니다. 그는 지난 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것이며, 비참하게 종살이하게 될 것이고, 그 고통이 괴로워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도울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택한 곳이고 관리하는 곳이기에 그들의 삶의 근본은 예루살렘을 가꾸시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있고, 깊이 있게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한 응답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재건의 뜻을 시도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면서부터 이 역사는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당시 술을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궁에 있는 사람들 중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건을 위해 모두가 결속, 단합되도록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명자의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감동을 받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52일만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이십 년부터 삼십이 년까지 십이 년 동안은 총독으로 세움받아 유다 땅을 다스렸지만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대접으로 만족하며 동족인 유대인들을 통해 공급받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사명의욕은 항상 영적인 소망에 입각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바랐습니다. 그랬기에 애타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가 중심으로 뜨겁게 소원했던 예루살렘을 52일만에 성곽을 재건할 수 있었고 그 성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들은 한 사람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몰아내는 운동을 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결혼하는 일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완전히 재건한 후에는 학사 에스라를 위임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성장을 위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했습니다.

느헤미야 8:5-6에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고 했고 8-9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했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성과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기울어지게 되면서부터 그 백성들은 비로소 다시 사는 새 생명과 새 조건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8:9-12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앎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하고 거북하게 느껴진다면 그 인생은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며 불행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친근하게 느껴지며, 목숨 바쳐 귀하게 섬기고 싶은 감동이 있는 사람은 전적인 구원의 보장과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위해 수고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소망을 회복받기 위한 사명의욕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던지는 희생과 헌신의 제물이 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시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돌이켜지기를 소원하여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는데,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위하는 삶을 살기를 애쓰고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순수한 사명의욕의 성과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회복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건의 벅찬 기쁨은 그것을 위해 애쓰고 수고해온 충성스러운 종들의 분깃으로 상급이 되어 되돌려져 올 수 있음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 한 국 선 교 설 교 | | | | |
|---|---|---|---|---|
| TV 한국방송 설교 | | | 한국 신문 설교 | |
| CBS TV | 목요일 오후 2시 | | 경북 기독 신문 | 3면 설교 |
| CTS TV | 금요일 오전 6시 | | 기도원 연합신문 | 3면 설교 |
| 해 외 선 교 설 교 | | | | |
| TV 미국방송 설교 | | |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 |
| COX TV 워싱턴DC. | 화요일 오후 6시 | 목요일 낮 12시 | AM1540 라디오 코리아 |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
| | 토요일 오전 7시 | 주일 오후 10시30분 |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
| CTS TV | 수요일 |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
| | 토요일 |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 | |
| 미국 신문 설교 | | | AM1310 기쁜소리방송 |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
| 기독일보 | 5면 설교 | 오프라인 칼럼 설교 | | |
| | 인터넷신문 설교 | 온라인 칼럼 설교 |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행복재단에서 풀타임 직원을 구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8:7)

**나의 모습을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지!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 **행복재단의 풀타임 직원을 구합니다.**
  - 컴퓨터와 영어능력 있는 분
  - 재능을 전수 및 기독상담 봉사하실 분
  - 관절염 환자 한약 분 30분 무료(싯가 $80.00) 선착순 배부(건강원 기부)
  - 뱅크럽시 변호사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 (Chapter 7 변호사 비용 $350.00)

**행복재단(Be Happy Foudation)**
Tel.(213)545-4787(오후1시~4시)
981 S. Western Ave. #300A, LA, CA 90006
email:bhfhelp@gmail.com



## 부 교역자 청빙

**L.A 한인타운에 웨스턴과 3가에 위치한 올리브나무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에서 아래와 같이 부 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수석 부목사 1명** (교육, 전도)
**전도사 2명** (한어 청년부1명), (어린이부 1명)

**이력서 보내실 곳**
이메일 : dsbio@yahoo.com (이력서 1장만 보내시면 됩니다)
기타문의: T.(213)300-9762

**예배안내**

| 주일 성인 예배 | 주일 어린이,청소년 예배 | 목요예배 |
|---|---|---|
| 1부 오전 9시 | 오전 11시 | 오후7시 |
| 2부 오전 11시 | 오후 1시 | |
| 3부 오후 1시 | | |

**올리브나무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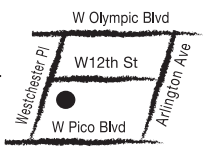
## J.C 의료 선교

수술하기도 애매하고 약을 먹어도 별 치료를 다해도 애를 먹이는 **고질병, 손목관절, 허리통증, 어깨통증, 다리관절, 이명, 고혈압, 목 아픈 갑상선, 고엽제 환자** 신기하게 치료됩니다. 30명 선착순 선교차원에서 무료 치료합니다.
- 국제 침술사 제임스 남

## 열쇠 기술 속성반 모집

1년은 배워야 하는 과정이나
3개월 안에 연수, 졸업장, 자격증을 드립니다.
- 극히 작은 장소에서 영업 가능
- 극히 작은 자금으로 영업 가능
-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자영업

미국 학교에서 정식 연수한 최고 기술로써 40년간 경력이 있는 열쇠 세계 최고의 고수 김재홍 선생이 직접 전수합니다.




연락처 : T.(213)298-8384, T.(907)229-5577
주 소 : 1232 Westchester Pl, LA, CA 90019


# 여행은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여행은 제게 있어 조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행이 주는 축복이 있기에 여행을 떠나곤 합니다. 여행을 통해 누리는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행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 좋은 만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만남은 신비입니다. 또한 만남은 은총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은 만남을 통해 풍요로워집니다. 새로운 만남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한 사람을 새롭게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과의 새로운 만남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만남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만남은 새로운 기대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새로운 만남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줍니다.

새로운 만남은 낯선 만남입니다. 낯선 만남은 조금 두렵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낯선 만남을 통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내려갔을 때 보디발을 만났습니다. 요셉과 보디발의 만남은 낯선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선 만남을 통해 결국 요셉은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과 바로 왕과의 만남도 낯선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선 만남이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낯선 만남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낯선 만남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은 낯선 만남을 통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만남과 함께 좋은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꾸는 것이 소중합니다.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좋은 만남입니다. 모든 만남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만남은 나쁜 만남이 있습니다. 나쁜 만남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런 까닭에 만남을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좋은 만남은 좋은 결과를, 나쁜 만남은 나쁜 결과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만남은 지속적으로 잘 가꾸어야 합니다. 반면에 나쁜 만남은 어느 선에서 매듭을 잘 지을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우리를 더욱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를 변화와 성숙으로 이끌어 주는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하도록 도와주는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은 더 깊은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는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 자신을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도와주는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좋은 만남을 가꾸는 것은 지혜입니다. 좋은 만남을 가꾸기 위해서는 정성어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씨앗과 같아서 정성스럽게 심고 가꿀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만남을 가꾸는 길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순간 새롭게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태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성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소유한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거듭남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 파킹장에서 결정됩니다

김 성 민 목사
팰리세이드교회

막내가 대학을 가기까지 4개월이 남았다. 4개월 후가 되면 우리 집도 아이들이 떠나간 조용한 집이 될 것을 생각하며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본다. "지난 28년의 세월 동안 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들려주며, 가르쳤는가?" 그 이유는 지난 세월 동안 더 좋은 것을 많이 보여주고 들려주었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좀 더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것을 보여 주었기보다는 나의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거침없이 보여준 일들이 생각나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나 혼자의 생각만은 아닌 듯하다. 여러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도 자녀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들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한인들에게 2세를 넘어 3세와 4세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 반면 1세는 더욱 늙어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1세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듯하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아직도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 소망은 "화해"를 통해서 생겨난다. 1세들과 그 다음 세대들과의 부모 자식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심방을 하며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들 자녀를 잘 키워 세상에서도 한 몫을 단단히 하게 했는지 자랑스럽다. 1세와 다음 세대들의 관계적인 화해는 불필요한 듯하다. 하지만 분명히 필요한 화해가 있다. 영적인 화해다. 영적으로 1세와 다음 세대의 관계는 너무나 좋지 않다. 2세들이 보는 1세는 더 이상 존경할 대상이 아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중 첫 번째가 교회에서 일어난 다툼을 보고서 더 이상 부모가 나가는 교회를 가지 않기로 한 것이며 믿음 생활을 아예 떠난 경우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다. 물론 그들 중에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믿음으로 사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데 더 많은 숫자의 2세들이 믿음생활을 떠난 것이다.

지금 1세들이 회개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인교회의 미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 지금 1세들이 일어나 2세들과 영적인 화해를 선포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화해를 시작하면 될까? 나는 파킹장에서 해결을 보아야 한다고 믿는다. 자녀된 2세들에게 부모로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고 함께 예배하자고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영어예배에 1세들이 함께 하는 것이다. 먼저 자신이 1세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영어회중에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는가? 그동안 언어의 다름과 문화적인 다름 때문에 많은 변명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 넘어 영어회중 예배 시간 15분 전부터 교회 파킹장에서 다 큰 자녀를 기다리는 1세 어른들이 많아질 때에 회복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믿는다. 그 기다림은 그렇게 떠나보낸 우리 1세들의 회개의 마음이고, 안타까운 마음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섬김이 아닐까 생각된다. 더우나 추우나 또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파킹장에서 자식을 기다리는 모습을 다음 세대들이 볼 때에 그들의 닫혔던 마음이 활짝 열릴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때에 우리 교회는 1세들로 끝을 맺는 곳이 아니라, 다음세대와 그 다음세대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곳이 될 것이다. 파킹장에서 해결을 보아야 한다.

#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부흥

김 지 성 목사
글로발선교교회

전 세계에 일어난 기독교 부흥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흥의 도화선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며 기독교의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출발은 영국의 웨일즈였습니다. 1904년 영국을 강력한 기독교 부흥의 불길 속으로 이끈 사람은 '이반 로버츠'입니다. 이반 로버츠는 탄광의 광부로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목회자 후보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17명이 모인 어느 수요일 밤 예배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눌한 설교였지만 성령이 크게 역사하셨고 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날이 바로 200만 명의 불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영국 웨일즈 부흥의 출발이 됩니다.

한국의 부흥은 1907년 평양에서 불꽃을 피웠습니다. 평양대부흥의 결과 한국은 복음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평양을 휩쓸고, 한반도 전역에 퍼져나가며 복음의 능력이 우리 한 민족에게 전달됩니다. 이 평양대부흥의 도화선은 1903년 캐나다에서 파송된 '로버트 하디'라는 젊은 의료선교사의 회개입니다. 그는 한 사경회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각 교회에서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며, 급속한 삶의 변화를 드러내는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한 사람의 회개와 헌신은 불꽃이 됩니다. 불꽃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화염을 일으키며 대부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는 세계사의 가장 강력한 물줄기를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 자리잡은 기독교의 엄청난 영향력을 섬세하게 관찰해 보면 한결같이 도화선을 이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대한 역사의 출발은 한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대변혁의 중심은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인류의 대재앙이라 할 수 있는 타락이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위대한 반전인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결론짓게 된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위대한 부흥, 그 부흥의 도화선은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1병 Free)
$267+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 프로지 골드
PRO-Z GOLD

HIGH QUALITY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 활성산소 제거?
# 해답은 수소수!

좋은 물을 마시면 우리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노화를 촉진하고 세포와 DNA를 공격하여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병들의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독성산소, Free Radicals)이며, 수소는 그런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물로 변환되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소의 역할**
- 대표적 활성산소인 하이드록시 래디컬과 결합해서 몸에서 배출
- 체내의 염증을 제거하여 통증을 완화
- 미세분자상태로 체내의 모든 부분, 심지어 뇌까지 도달되어 활성산소를 제거

**본 수소수기의 특징**
1) 2중 역삼투압 방식에 의한 순수한 원수를 바탕으로 고농도(800~1,000ppb)의 수소수를 생성하며, 물의 성질은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약알카리 상태가 됩니다.
2) 대용량 필터를 사용하여, 깨끗한 물을 생산한 별도의 전해조에서 생산된 수소가스를 우리가 음용하는 물에 가압하는 첨단방식으로 즉시 물을 드실 수 있고 오랜기간을 사용해도 수소가스의 농도가 유지됩니다.

높은 용존 수소량 · 가정용 수소수기 · 강력한 환원능력

일본의 시타마대학교의 하타나 가주끼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수소농도 1,000ppb의 경우에 베타카로틴 함량 기준으로, 위와 같은 양의 항산화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항산화 물질은 들어갈 수 없는 뇌 속이나 깊은 장기의 미세조직까지도 수소는 도달될 수 있으며 도달된 수소는 활성산소들을 물로 변환시키므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프랑스 "루르드 샘물"
독 일 "노르데나우 샘물"
멕시코 "트라코테 샘물"
세계 3대 샘물의 비밀

기적의 수소수를 가정에서 드세요!

수소 보틀(1병) 구입시
Enesti UV CUT SUN BLOCK
에네스티 유브이 컷 썬블럭 1개
(8불 상당 사은품)
공짜

수소수 무료 시음!
깨끗하고 건강한 물 드시러 오세요.
한국의 코정아쿠아 PLUS 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입니다.

CTP 100
$1,390+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정수기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GSPH 100
$2,990+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수소수기

**▪환원력이 뛰어난 수소가 생성되는 보틀**

[제품특징]
*스테인레스 필터를 통해 잎차, 티백, 천연차 등 다양한 음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적정사용온도 : 친환경소재와 제품 변형 방지를 위해 -20도~100도 사이에서 사용을 권합니다.
*심플한 디자인, 친환경 트라이탄 소재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높은 휴대성으로 여행, 스포츠, 레저 등은 물론 일상에서도 편리합니다.

1병 ~~$95.00~~ $65.00 +TAX

에뜨레벨
être belle
Made In Germany

| 피부 회복력 강화 시스템 |

24캐럿 골드와 꿀의 환상 조합!

# 피부 세포 재생 솔루션
G/O/L/D/E/N/S/K/I/N

**클렌징부터 마무리 크림까지 느낄 수 있는 24캐럿 골드 트리트먼트**

1) 눈가 쿨링 효과와 풍부한 영양공급으로 뛰어난 퍼밍 효과로 건강한 눈매로!
2) 자외선이 강한 오전에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 탄력을 향상!
3) 밤 사이 충분한 피부 휴식과 영양을 채워주어 피부 컨디션을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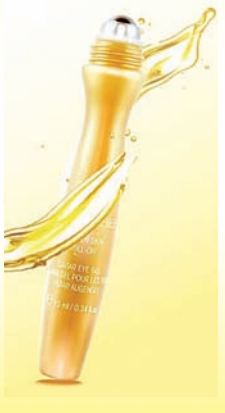
▪골든 스킨 케어 세트
**Golden Skin Care Set**
골든 스킨 아이 젤 15ml
골든 스킨 데이 크림 50ml
골든 스킨 나이트 크림 50ml
3종 세트 $256+tax

**Biocüra**
바이오큐어는 독일최대규모 코스메틱 막심과 엠에스코의 라인업 확장으로 의료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특허기술을 보유하여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바이오큐어의 제조에 기술제휴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 놀라운 효과를 한알에 담다 |
▪바이오큐어 트리트먼트 캡슐
**TREATMENT CAPSULE**
한알의 파워! 블랙캡슐
독일 제약회사의 기술력 바이오큐어
TREATMENT CAPSULE 50ml
$49+tax

미백효과
탄력개선
주름개선
항산화
안티에이징
혈색개선

| 금빛으로 빛나는 골드 캡슐 |
▪바이오큐어 콘센트레 퓨어세럼
**CONCENTRATE PURE SERUM**



▪골든 스킨 아이 롤-온
**Golden Skin Eye Roll-on**
휴대가 간편한 젤 타입의 아이 롤-온
탄력
피부결
수분공급
눈가 생기
Golden Skin Eye Roll-on 10ml
$34+tax

▪선 크림 + 애프터 선 로션
**Sun Cream + After Sun Lotion**
Sun Cream + After Sun Lotion 75ml+75ml
$44+tax

선크림과 애프터 선 로션 패지키 상품으로 선블럭을 차단해주며 햇빛으로 인해 자극 받은 피부 진정까지 한번에 가능한 제품.

구입문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

# "세계교회 하나 되어 복음 들고 일어나자"

## 제4회 글로벌 얼라이언스 국제컨퍼런스, 65개 민족 4천 7백여 명 참석

'제4회 글로벌 얼라이언스 국제컨퍼런스'가 지난 3-5일 경북 상주에 위치한 글로벌리더십센터(열방센터)에서 개최됐다.

'Global Alliance and Cooperation for World Mission: 세계교회 영적 동맹'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내와 해외 목회자, 현지교회 지도자 2,500여 명을 포함해 총 4,700여 명이 참가했으며, 65개 민족이 모여 17개 언어로 동시통역됐다. 이는 국내에서 개최된 선교 컨퍼런스 중 최대 규모라고 한다.

컨퍼런스를 주최한 인터콥선교회(이사장 강승삼 목사)는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안티 기독교 체제 등 시대의 도전 앞에 무력해지고 있다. 어느 때보다 충성된 세계 교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영적으로 연대해야 할 때"라며 "컨퍼런스를 통해 신실한 복음주의 세계교회가 영적으로 연합하여 어두운 시대를 이기고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로 함께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컨퍼런스에는 국내외 선교지도자 및 선교현지 지도자들이 강사로 나섰다. 주요 강사로는 강승삼 목사(이사장), 황성주 목사(KWMA 회장),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김한요 목사(베델한인교회),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 박희민 목사(전 나성영락교회), 김용실 목사(예장 합동 증경총회장), 최바울 선교사(인터콥선교회 본부장), 그리고 해외-서구권에서는 크리스 보너 목사(필라델피아 Lansdale Life Church), 데이비드 아일랜드 목사(뉴저지 Christ Church USA), 토마스 카이나스 목사(뉴저지 Calvary Temple) 등이 나섰다.

또 러시아와 터키부터 중국, 몽골, 일본,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요르단, 팔레스타인, 이집트 지도자들이 각 교회 상황과 선교 현황 및 타문화권 선교 전략 등에 대해 보고했다.

첫 강의에서 '한국교회 세계선교 운동'에 대해 소개한 강승삼 목사는 "교회 부흥과 선교는 가장 어려울 때 일어났는데, 지금 선교사 수가 늘지 않고 있다. 다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며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선교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사람을 키워 세계 선교에 동원하는 제자화 선교 운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체적 프론티어 선교'에 대해 발표한 황성주 목사는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여야지,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는 선교가 돼선 안 된다"며 "우리는 성공지향적인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들을 경험해야 한다"고 전했다.

황 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선교 현장에 우리가 그저 참여하는 것"이라며 "중국 가정교회가 수백만 곳 생길 때까지, 이란 지하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모일 때까지, 공산주의 쿠바에서 25%가 신앙을 갖기까지, 우리가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시대는 삶과 선교를 분리시키지 않는다"며 "가정을 변화시켜 본 사람이 그 나라에서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 외의 영적 리더를 허락하지 않으셨고 모두 종이 되라 하셨다"며 "목회자는 가장 비천한 자로, 낮은 자로, 성도들을 섬겨서 보내고 파송해야 한다. 자기 왕국을 만들어 교회를 타락시키는 목회자가 아니라, 겸손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그리스도와 복음 위한 영적 연대 강조
## "고난 이기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자"

오후 시간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실 꿈이 있으십니다(삼상 16:1-2)'라는 제목으로 강의한 데이비드 아일랜드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고, 우릴 향한 꿈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꿈을 모를 수 있다. 우리는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기회는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찾아온다"며 "우리가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다윗은 순종, 기도, 금식 같은 습관들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이재훈 목사는 '나중 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 되리라(마 20:1-16)'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그는 "복음의 진리는 역설로 밖에 알 수 없다. 육신의 본성, 자기중심적 본능에 이끌려 합리화하고 포장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며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높은 자가 된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또 하나의 역설은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역설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전하며 살아가는 헌신자와 사역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나 나타나지 말아야 할 현상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누구보다 헌신한 여러분들 안에 '나의 헌신과 희생의 보상은 무엇인가?' 하는 베드로와 같은 질문이 일어나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 질문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날 오전 크리스 보너 목사는 "2014년 IS에 의해 아랍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수당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너무도 많은 눈물을 흘렸다"며 "그들은 핍박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옳은가 질문했다. 이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역동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무슬림들을 도울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인터콥선교회와 연결돼 함께 이집트를 품고 아랍 선교를 시작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예수님의 선교 전략(눅 10:1-5)'에 대해 강의한 박희민 목사는 "선교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교 전략 중 가장 중요한 것은 70인을 각처로 보내신 것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지의 세계로 흩어 보내는 디아스포라 선교를 해야 한다"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과 기독 공동체를 통해 선교하시고, 영적 리더십을 가진 리더와 팀워크 및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고, 생명을 바칠 예수와 복음전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자 특명"이라고 했다.

'복음(롬 1:16-17)'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한 김한요 목사는 "복음의 본질은 복음의 편만성에 있다. 특정 민족이나 특정 부류를 위한 것이 아닌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 복음"이라며 "불교나 이슬람교 등은 성지가 있지만 오직 기독교만 성지가 없는 이유는, 복음이 특정 문화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셋째날 오전 강의한 토마스 카이나스 목사는 '비전형적 예수'라는 제목으로 "예수께서는 관습을 벗어나 항상 불편함을 추구하셨고, 언제나 갈급하고 궁핍한 자에게 찾아가시거나 죄인을 만나 회복하시며 제자 삼으셨고, 깨지고 상한 자들과 함께 하셨다"며 "예수는 당시 가장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분이셨다. 우리도 지금까지 봐 왔던 모든 종교행위를 다 깨트리고, 급진적이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바울 선교사는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다. 세계 통합 운동과 안티기독교 운동, 동성애, 이슬람,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도전하는 과학기술의 발전 등 세계는 예언된 것처럼(마 24:3-14) 마지막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시대는 더욱 어두워지고, 기독교인들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 강력하게 전진하고 있다. 신실한 복음주의 세계교회가 연합하여 고난과 두려움을 이기고 모든 민족에 복음을 증거하여 상명령을 완수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역사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선교사는 "우리는 지금 10/40창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선교 부흥의 역사를 목도하고 있다. 세계교회가 선교사를 받음과 동시에 파송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 이런 선교현장의 놀라운 소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전진하고 있음을 더욱 확신하는 갖게 된다"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끝까지 마지막 시대 선교 명령 완수를 위해 헌신하는 세계 교회가 되자"고 촉구했다.

끝으로 "글로벌 얼라이언스는 마지막 시대, 남은 자의 영성을 가진 자들의 영적 동맹이다. 성경의 마지막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속히 다시 오리라 약속하시고,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한다"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큰 영광을 보는 것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영광으로, 이를 위해 동맹하자. 우리는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전진할 것"이라고 도전했다.

이대웅 기자

한교연 및 꿈나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교연

# 한교연, 미혼모 시설에 정착금과 아기용품 등 전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교연) 여성위원회(위원장 권복주 장로)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8일 오전 서울 상도동 사회복지법인 평화복지재단 산하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꿈나무(원장 박미자 권사)를 방문해 자립정착금 100만원과 아기용품(기저귀, 물티슈) 등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과 섬김을 실천했다. 또한 한국여장로회연합회 회장 홍기숙 장로와 임원들도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해 자립정착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한교연 여성위원장 권복주 장로와 총무 이경희 장로, 회계 김순희 장로, 위원 김순미 장로와 홍기숙 장로(한국여장로회연합회 회장) 및 임원, 한교연 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물품 전달식은 이경희 장로의 사회로 홍기숙 장로의 기도, 최귀수 목사(사무총장 대행)의 '빛'(마4:15~16) 제하 설교, 여성위원장 권복주 장로의 격려사에 이어 아기용품과 자립정착금을 전달하는 순서를 가졌으며 꿈나무 박미자 원장이 인사한 후 최귀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최귀수 목사는 설교를 통해 "죽음과 절망의 땅에 큰 빛이신 주님이 오심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땅으로 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분부대로 이 땅의 소외되고 작은 자들을 섬기는 일을 통해 작은 소망의 빛이 비춰지기를 기도한다"고 강조했다.

꿈나무 박미자 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회복지법인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인 꿈나무에 도움의 손길을 전한 한교연 여성위원회와 한국여장로회연합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미혼 엄마와 아이들이 장차 사회로 한발 더 다가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교연 여성위원회는 미혼 엄마와 아기의 안정적인 자립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꿈나무에 3년 전부터 매년 꿈나무를 지원해 오고 있다.

김진영 기자

구세군이 KB국민은행과 함께 긴급구호활동에 나섰다. ⓒ구세군

# 구세군, 강릉 · 삼척에서 구호활동

한국구세군(사령관 김필수)이 8일 KB국민은행과 함께 강원도 강릉·삼척지역 산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긴급구호활동 직원을 파견하고 물품을 지원했다.

이날 전달한 물품은 약 2,000명 분의 아이스박스, 얼음, 이온음료 등이다.

구세군 관계자는 "화재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이웃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한장총 채영남 대표회장(왼쪽)이 금강학교 주명화 교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장총

# 한장총, 탈북민 대안학교 방문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채영남 목사)는 지난 4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순미 장로) 주관으로 탈북민 편부모 자녀를 위한 대안학교인 금강학교를 방문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강학교 교사 5명, 학생 27명이 참석한 예배는 김순미 장로(여성위원장)의 사회, 오치용 목사(부회장)의 기도 후 이사야 43:1~4절을 본문으로 채영남 대표회장이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채영남 대표회장은 "비록 금강학교의 학생들이 탈북민 편부모 자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며 "한국장로교회는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소외된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계속 섬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강학교의 주명화 교장은 "탈북민 자녀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또 설교를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이 존귀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셔서 금강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 교회 및 선교회

##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한국학교 토 오전10:00 ~오후1:0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오병이어 화 오전11:00 ~오후6:0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쉽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전도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주일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 오전5:30(월~금)
주일 2부 오전 11:00 새언약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30
수요큐티모임 : 저녁 7:00 교회학교(Child Youth) : 매주 주일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 저녁 8:00
**강양규** 담임목사
**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 (213)434-1083 www.new2011.org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영어예배 오후 1:00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영어예배 오전 10:00 /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축복의 통로되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 공동체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 수요기도회 오후 7:30 /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영어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00 /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 토요한글학교 오전 10:00~오후 1:00
김성수 담임목사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믿음과 충성으로 서자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00 /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 2부예배 오전 9:45 / 3부예배 오전 11:45 /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9:15 / 3부예배 오전 11:45 /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 EM 1부예배 오전 9:30 / EM 2부예배 오전 11:45 /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 새벽예배 오전 6:00(월 ~토) / 수요예배 오후 7:30 / 금요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 금요예배 오후 7:30 / 매일QT 월~금 오전 6:00 /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최승목 담임목사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 2부예배 오전 10:00 / 3부예배 오전 11:45 /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 금요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 성경공부 오후 7:30 (화) / 수요예배 오후 7:30 /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 사우스베이, 토렌스, 가디나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30 / 3부 EWS 예배 오후 2:00 /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 금요기도회 오후 7:00 /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00 /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 EM 1부 9:30/ 2부 11:00 / 중/고예배 오전 11:00 /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 오후 1:30 / 수요예배 오후 8:00 /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 EM예배 오전 11:00 / 주일학교 오전 11:00 /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젼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열린예배 오후 1:30 /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 오후 2:00 /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 주일2부 오후 12:45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 90274
T.(310)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1부 오전 8:00 / 2부 오전 10:30 / EM예배 오후 12:30 / 유년부 오전 10:30 / 중고등부 오전 10:30 / 한어청년 오후 12:3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 2부 예배 오전 11:00 / 중고등부 오전 11:00 / 유년부 오전 11:00 / EM 오후 1:00 /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 Awana 오후 8:00(금) /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 주일 2부 오전 9:30 / 주일 3부 오전 11:30 / 젊은이예배 오후 2:00 / EM예배 오후 1:30 /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 영어예배 오전 10:00 / 금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목회자 세미나에서 김재규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 김재규 목사의 40년 목회 노하우 "주님의 양 치는 목회해라"

AKRCA 뉴욕교협 목회자세미나가 1일 오전 10시 신광교회에서 대신 증경 총회장이자 현재 캄보디아 장로교신학교 총장인 김재규 목사를 초청한 가운데 '목회 비전 바로세우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RCA 교단 목회자를 비롯한 뉴욕 지역의 목회자들도 참여해 목회 비전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이날 김재규 목사는 '디모데전서 4:6'을 본문으로 한 강의에서 자기만의 목회 철학이 바로 서야함을 강조하면서 눈치 보는 목회가 아닌 자신만의 목회를 위해서는 목회자가 먼저 자기의 양이 아닌 예수님의 양을 치는 청지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에서 김재규 목사는 "목회라는 말은 곧 양을 보살핀다는 뜻이다. 그 양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 교회의 양"이라면서 "처음 목회를 해서 10년 째까지는 제가 외부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서 외식적인 자세가 되고 잘 안될 때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다 보니 목회가 뜨겁지 못했다. 그러나 주님의 양을 치는 자세를 가졌을 때 눈치를 안 보는 목회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또 김재규 목사는 목회자는 종된 리더십을 가져야 하며, 종된 리더십은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매우 유기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규 목사는 "오래 목회를 하게 될 때 어릴 때부터 봐왔던 이들이 자라서 직분자들이 되는데 실수하기가 쉽다. 목회자는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교회 직분자들을 대하면 영적 권위가 온전히 바로 서게 된다"고 전했다.

김재규 목사는 교회의 중요한 본질과 관련해서도 예배와 봉사, 친교, 선교, 교육 등 5가지를 강조하면서 목회자가 이 5가지 교회의 본질을 항상 염두하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선교와 관련해서는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 중에도 힘들게 선교를 위해 내어놓을 때 오히려 부족함이 없었다고 간증했다.

김재규 목사는 40년 목회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경험과 관련해서 목회자가 장단기 목회계획을 세울 것과 철저한 자기관리와 영성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회 내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철저히 기도 후에 직분자를 바로 세워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욱 장로가 전도 부흥회에서 간증하고 있다.

# 순교자적 삶으로 복음 전파 위해 헌신 결단

## 의사 전도왕 이병욱 장로 초청 2017 전도 부흥회

훼드럴웨이 제일장로교회(담임 최병걸 목사)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의사 전도왕으로 잘 알려진 이병욱 장로를 초청해 전도 부흥회 갖고, 전도와 선교에 총력을 기울이는 교회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병욱 장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사는 것이 순교자적인 삶"이라며 "사도의 삶처럼 생명을 드려 복음전파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로는 "때로는 주의 일을 섬기며 삶 가운데 고난과 환란을 경험하게 되지만, 고통과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만 바라보며 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인생이 되자"고 독려했다.

그는 또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드러난다"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고 힘주어 말했다.

이병욱 장로는 외과 및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로 암 수술 후 재수술이 거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암 전문의로 의료계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 그러나 의사이기 전에 어떤 환자든 만나면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의사 전도왕으로 더 유명하다. 몸을 살리는 의사이기 전에 영혼을 치유하는 뜨거운 사랑으로 전도를 본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진료 현장에서 만나는 어떤 환자든지 수술 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열성적으로 전도하며 웃음과 사랑으로 행복을 회복시켜 주는 의사 전도왕이자 힐링 멘토로 환자의 몸은 물론 마음까지 치료하는 진정한 의사다.

이병욱 장로는 "더 이상 불평과 불만, 근심과 걱정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입술로 축복하는 인생을 살라"며 "기쁨과 감사를 통해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힘을 얻고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가 야망을 쫓아 살 때, 우리 육신은 병이 들지만,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기초한 성령의 꿈과 소망을 따라 살 때, 지치지 않고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된다"며 "우리 삶의 꿈과 비전이 모두 천성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에 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장로는 27년 동안 빠짐없이 이어오고 있는 필리핀 선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의료 선교를 위해 의료계의 3D 분야인 외과를 지원하며 받은 하나님의 축복 등 부흥성회 기간 자신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증거했다.

김 브라이언 기자

앞서 공개된 영상에서 보코하람에 납치된 여학생들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영상화면 캡쳐

# 보코하람 납치됐던 여학생들 풀려나

## 276명 소녀들 가운데 일부

3년 전 극단주의 무장세력 보코하람에 납치됐던 나이지리아 여학생들이 대거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나이지리아 정부 관계자는 6일(현지시간) 치복에서 납치된 이들 소녀 가운데 일부가 협상 끝에 보코하람의 손에서 빠져나왔다고 밝혔다.

보코하람과 협상을 진행 중인 나이지리아 정부는 작년 10월 소녀 21명의 귀한을 이끌어내면서 83명이 곧 추가로 석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함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의 보좌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많은 수가 석방된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에 석방된 소녀들은 2014년 4월 나이지리아 치복의 학교 기숙사에 있다가 보코하람에 납치된 276명 중 일부다.

이들 중 다수는 강제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결혼해 임신했으며, 인권단체들은 이들이 자살폭탄 테러에 동원되기도 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치복 소녀들을 포함해 수년 간 보코하람에 납치돼 인권이 유린 당한 이들은 수천 명에 달한다.

보코하람의 반란 때문에 살해된 이들은 2만명이 넘고, 260만명이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나섰으며 수백만 명이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다.

강혜진 기자

강연하고 있는 이현서 씨 ⓒTED 화면

# "트럼프처럼 北 비판한 美 대통령 없어"

## 탈북자 이현서 씨 폭스뉴스 인터뷰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라는 책의 저자인 탈북자 이현서 씨가 3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처음 들었을 때 "울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인터뷰에서 "우리가 70년간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어떤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핵무기와 미사일, 억압 등을 일삼는 김정은을 '위험한 적'으로 규정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사람들을 정말 통제할 수 있다. 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독재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1990년대 사형과 세뇌, 기근을 목격했고, 이로 인해 1백만 명이 사망하고 버려졌다"면서 "시체가 너무 많아서 그 시체들을 없애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도 전했다.

이씨는 10대 때인 1997년 북한을 탈출한 후 수년 간 중국에 머물며 어려움을 겪다가 라오스를 거쳐 한국으로 넘어왔다.

2015년 영문 자서전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라는 책을 낸 이 씨는 이 책에서 자신이 탈북자 생활을 하는 동안 사용했던 엘리스 등 가명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영어와 중국어를 전공했으며 그의 TED 강연 영상은 1,0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강혜진 기자

# 자녀에게 지옥의 공포 가르쳐라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파이퍼(John Piper) 목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다가오는 최후의 심판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 지옥의 공포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고 부모들에게 전했다.

파이퍼 목사는 최근 디자이어링 갓 웹사이트(Desiring God)를 통해 한 부모로부터 죽음과 지옥에 대해 극도로 불안을 느끼는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파이퍼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지옥으로 인도할 의도는 없다. 하지만, 이 다섯 가지 위대한 사실을 분명히 하고 확증하여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 이것은 6세의 어린이에게나 60세의 어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사실이다"라고 했다.

첫째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크고 영광스럽고 진실되게 여기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둘째로, 지옥은 아이들에게 죄의 심각성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다.

셋째로, 그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현실과 의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도와준다"고 말했다.

네 번째, 파이퍼 목사는 모든 것에 대한 열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는 기회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자녀들의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치료하는 것은 지옥에 대한 설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아이에게 두려움 없는 신앙 생활을 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파이퍼 목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기초하여 지옥에 대해 자녀가 두려움을 갖도록 가르쳐 줄 수 있다면, 두려움 없이 인생과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파이퍼 목사는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죽음과 지옥을 정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들은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3300 세계비전을 이루는 생명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빨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LA예배처소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346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el: (213) 232-3163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학교 11: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새벽예배 화~금요일 5:30 AM
주일 3부예배(영어) 1:30 PM 토요일 6:30 AM
금요찬양예배 7:30 PM
이원준 담임목사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 8132gospelchurch@gamil.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기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8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주일예배 1부 오전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토요한글학교, 에프터스쿨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1부예배 오전8:15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새벽기도회 월 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www.sellacare.com SEARCH

# Congratulations!

서울대학병원/암센터내 샵 입점 고려대 안암병원내 샵 입점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면역력 강화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세트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CGMP생산품**

## 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싶다면 **혈액순환, 혈관건강**부터 지켜야…

- **혈 관 성** 치매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건강식품 섭취하여 혈관성 치매 예방
- **뇌 졸 증** 기름지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은 피하고 섭취함으로써 뇌출혈 예방
- **동맥경화** 평소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복용하여 신체의 혈관청소에 도움 줘야
- **고지혈증** 음주를 자제하고 수영, 등산 등 운동과 함께 혈액혈관 영양제 복용

면역력이 곧 기적!
어떠한 병이든지 도움을
줄 수있는 좋은 영양제

☑ *100% Organic* (유기농)
☑ *Non-GMO* (유전자조작 無)
☑ *All Natural* (순수천연)

1.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2.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3.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4.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5. 소비자의 재구매 확률이 높습니다.

##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 산성 | | 중성 | | | | 알카리성 |
|---|---|---|---|---|---|---|
| | | | | | | 셀라케어 |
| 3.5 | 6.0 | 7.0 | 8.5 | 9.0 | 9.5 | 10 |

셀라케어 제품은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의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 SELLA CARE®

##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 | | | | | | | |
|---|---|---|---|---|---|---|---|
| 본사(LA) | 213.435.9600 | 현대약국 (웨스턴+5가) | 213.480.3322 | 세리토스 파이오니아약국 | 562.402.6972 | 세크라멘토/아리조나 | 602.332.6492 |
| 다운타운 산페드로 | 213.765.9677 | LA시온마켓 엄마손약국 | 213.739.3030 | 에나하임 | 714.469.5809 | 시카고 알바니약국 | 847.699.1511 |
| LA내쳐영양센터 | 213.739.8874 |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 323.733.7200 | 얼바인 | 949.330.9009 |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 224.406.0337 |
| LA 다운타운 | 213.798.3333 | 뉴서울호텔 (팔달) | 213.386.5310 | 랜초쿠카몽가 | 909.987.9500 |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 770.457.1717 |
| 국제건강가족동호회 | 213.382.9714 |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 818.637.7708 |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 909.595.4003 | 텍사스 (Nature's Gift) | 972.280.9006 |
| 시온약국 | 213.344.9730 | 밸리 소망 약국 | 818.832.2757 | 놀웍 H 마트 리빙헬스 | 562.402.8859 | 플로리다/NC/SC | 770.457.1717 |
| LA 아드모아약국 | 213.385.2135 | 발보아 약국 | 818.831.2090 | 로랜하이츠 | 626.912.5727 | 씨애틀 (건강마을) | 206.229.5466 |
| LA 한국마켓약국 | 323.464.3925 | 플러튼 내쳐영양센터 | 714.690.0120 | 그린랜드 건강헬스(그린마켓 내) | 626.839.2868 | 하와이 (생약촌) | 808.947.8086 |
| LA 베스트약국 | 213.385.9926 |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H마트 내) | 714.228.9212 | 토랜스 한남체인(건강마을) | 310.619.7758 | 캐나다 | 604.872.1669 |
|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 213.384.6323 | 가든그로브 만미당옆 | 714.333.7866 | | | | |
| LA벌몬 마틴약국 | 213.382.9718 | 가든그로브 한성한의원 | 714.638.5100 | | | | |
| LA벌몬 갤러리아마켓약국 | 213.388.4100 | 세리토스 패밀리약국 | 562.402.0500 | | | | |
|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 213.380.5103 |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 562.402.6970 | | | | |

한국총판 010.6503.0191
서울혜화동 서울대병원 본원내 02.2072.1579 / 암센터내 02.2072.7565
서울고대 안암병원내 2층 02.928.9580 경기 분당 서울대병원내 031.719.9589

갈릴리 가나에 있는 로마가톨릭교회인 혼인교회의 전경. 교회당 내부에는 돌항아리가 하나 있다. 약 80리터의 물이 들어간다는 이 항아리는 돌 절구 모양을 하고 있다. 가나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을 기념하는 교회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성 조지 그리스정교회다. 그러나 대부분의 순례객들은 주로 혼인교회를 방문한다.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32)

# 포도주의 기적 – 가나

### 갈릴리 가나의 유래

갈릴리 지역이라 함은 갈릴리 호를 중심으로 하부 갈릴리(평야 지대)와 상부 갈릴리(산맥과 고원 지대)로 나눌 수 있는데 크파르 가나는 하부 갈릴리 쪽에 속하는, 전형적인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17세기에 크파르 가나는 바티칸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갈릴리 가나로 인정되었고 이 마을 주민들은 이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곳은 기독교 성지 명부에 추가되었다. 고고학자 가운데 일부는 이 가나를 고대 이집트 아마르나 서신에 언급된 Kana와 동일시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로마-비잔틴시대(BC65-AD600)에는 큰 유대 지역사회가 있었고, 마물렉 왕조시대까지(AD1200-1571) 대부분의 주민들은 기독교인이었다. 아직도 유대인 공동체가 이곳에 있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은 아랍계 이스라엘 시민들로 무슬림과 기독교인들이 섞여서 살고 있다.

### 가나의 풍경

가나에 들어서면 상점들의 간판이 히브리어와 아랍어로 반반씩 나누어져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민들은 아랍인들이지만 1948년 이스라엘 독립 당시부터 이스라엘 지역에 속하여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아랍인들이라 자연스럽게 모국어인 아랍어와 지배언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교회 거리(Church street)를 찾아 들어가면 1886년에 세워진 성 조지 그리스정교회와 로마가톨릭 혼인교회가 나온다. 로마가톨릭 혼인교회는 1879년에 프란체스카 수도회가 터를 매입하였고, 1881년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념교회를 세웠다. 순례객들은 바로 6세기 교회 터 위에 새로 세워진 현재의 로마가톨릭 혼인교회를 방문한다.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이스라엘선교회

정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로마가톨릭 혼인교회를 지나 성 조지 그리스정교회를 방문한다. 그리스정교회에는 두 개의 돌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를 바로 그리스도가 기적을 일으킨 돌항아리로 믿고 있다.

로마가톨릭 혼인교회에 들어가면 1층이 예배당이고 지하층이 초대교회의 터이며 지하 중앙에는 예수님이 혼인 잔치 집에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다는 돌 항아리가 놓여있다. 여섯 개가 당시에 있었는데 지금은 오직 한 개만 남아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항아리는 단독으로 항아리 모양을 하고 있지 않았고 돌덩어리에 구멍을 판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주변의 돌들을 제거하고 돌을 파 놓은 것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약 80리터가 들어간다는 이 돌 항아리는 투박한 돌 절구 형상을 하고 있다.

1층 본당의 정면에는 항아리 6개가 놓여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항아리는 질그릇 항아리이다.

성 바돌로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교회도 있는데 제자들 중 한 명인 성 바돌로매의 고향에 전통을 따라 지었다고 한다.

가나는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10km(25리) 쯤 떨어진 곳에 있으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향하시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익히 아는 대로(요 2:1-11) 이곳은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행하신 곳이다. 그리고 나다니엘의 고향이기도 하며(요 21:4) 왕의 신하의 아들 병을 고쳐주신 곳이기도 하다.(요4 :46-54)

### 첫 기적의 의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예표하는 것을 해석되어 왔다. 이 첫 기적은 1. 그리스도는 우주만물에 주권이 있음을 보여주며(롬 11:36), 2. 존재론적 변화를 암시하며(롬8:2), 3. 천국의 실상과 기쁨을 보여준다.(마22:1-14)

뿐만 아니라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은 고대로부터 흔히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마셨다. 보통 포도주는 '야인'이라고 하고 포도 주스는 '티로쉬'라고 한다. 성경 본문에는 야인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혹자는 생각하기를 처음 잔치에서 사용된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야인이고 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알코올 성분이 전혀 없는 티로쉬라고 한다. 그 이유는 마시고 취하는 야인보다는 마시면 기분만 좋아지는 티로쉬가 더 좋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가나에서 파는 포도주는 알코올 유무에 따라 두 종류다.

혼인교회 방문을 마치고 나오다 보면 여러 가게들이 포도주를 팔고 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무슬림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다. 선물가게에서는 포도주를 맛보라고 순례객들에게 제공하는데 때때로 우리는 이곳에서 포도주를 한잔씩 받는다.

하지만 우리가 가나를 방문하면서 깊이 생각하여야 될 것은 기쁨은 고난을 통하여 온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고난의 피와 나누실 몸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인 잔치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만 들어갈 수 있음을 생각하여야 한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에 들어갈 때 손을 씻을 수 있는 장치를 회당 입구에 해 놓았다. 일종의 회당 예배 참여를 위한 정결 의식인 것이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돌 항아리도 유대인의 정결을 위한 물 항아리로 사용된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정결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다. 십자가의 피로써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이다. 믿음이 없는 자는 아직도 손을 씻는 행사를 하여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받았음을 가나에서 다시 생각해 본다.

〈계속〉

가게에서 파는 각종 포도주


2017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온 목사 T(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총신 대학교 신학 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 이동규 박사 학장 :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지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중고차 최고가 매입$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의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Lake St.) (월수토 예약 필수)

2017 CD PRINTING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패키지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160 (디자인 포함)
Stand X-Banner $65
Retractable Banner $140

선교 찬양 단원 모집
•단장 : 1명 •기타 : 1명
•단원 : 12명 •키보드 : 1명
* 40~50대 남녀
* 찬양선교에 관심있거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
문의 : T.(213)800-5205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왕만두 (10개 $10)
팥찐빵
부추교자 (50개 $20)
김치교자
무료배달 ($40이상 주문시)
손으로 정성껏 만듭니다.
인하손만두 626.731.7864

9가 로데오 갤러리아몰
OPERA HOUSE Bakery
교회 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환영
T. (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Suite # 38 Los Angeles,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혹,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배 빼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라미라다 가든 꽃집
La Mirada Garden Florist
Flowers For All Occasions
Serving OC and LA Counties since 1969
라미라다 가든 꽃집은 35년 넘는 경험, 노하우, 자신감, 그리고 새로운 감각의 꽃으로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꽃집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개업식 그리고 모든 이벤트를 아름다운 꽃과 서양란, 각종 화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 배달 해 드립니다.
www.lamiradagarden.com
lamiradaflorist@gmail.com
Tel. 714) 521-0901, 800) 645-1114
14794 Beach Blvd., City of La Mirada, CA 90638

● 이장렬 교수의 〈회복의 복음〉 칼럼

# 실패 직면: 회복의 지름길

이 장 렬 교수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신약학

디베랴 바다에서 밤새 고기잡이를 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의 허탈한 삶 한복판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신다. 밤새 허탕만 친 제자들에게 엄청난 포획의 기적을 선물해 주시고 이로 인해 그들의 공허함과 허무함이 극복되게끔 하신다.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단숨에 잡힌 것도 기적이거니와 목화 재질의 변변치 않은 그물이 그런 수많은 물고기의 무게를 견뎌내고 성하게 보존된 것이 어찌 보면 더 놀라운 기적이다.

주님께서는 밤샘노동으로 지친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친히 차려 놓으셨다. 이 식사는 오병이어 사건을 회상시키는 아주 특별한 밥상이다(요6:1-14 참조). 그러나 요한복음은 여기서 바로 끝나지 않는다. 21장 15절은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로 시작하는데, 이 특별한 식사 이후에 아직 무언가 중요한 일이 남아있음을 암시한다.

오병이어 사건을 연상시키는 극적인 아침 식사 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 여기서 "이들"은 헬라어 문법상 베드로의 동료 제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베드로가 포획한 물고기들과 그물, 배를 포함한 그의 어업 활동을 전반을 지칭할 수도 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고기잡이로 돌아간 베드로를 부활 예수께서 제자로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21:2-3) 그리고 저자 요한이 이 장면을 일전에 어부 일을 하다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던 장면(눅5:1-11 참조)과 중첩시키고 있음을 생각하노라면, 아마 어업 활동 전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들"이란 지시대명사가 어느 쪽을 가리키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통해 주님 자신이 베드로의 궁극적 사랑의 대상인지 여부를 묻고 계심이 분명하다.

주님은 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반복하신다.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21:15) ……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21:16) ……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21:17)"

그런데 세 번째로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주께서 세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21:17)"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는 루페오인데, 이 단어는 '고통을 느끼다' 혹은 '심각한 내통 진통을 갖다' 등의 강도 있는 뜻을 담고 있다. 실제로 요한복음 16:20에서는 같은 동사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세 번째 질문을 받고 나서 심한 내적 진통을 느꼈을까? 왜 세 번째 질문에 이르러서 갑작스런 내면적 아픔이 돌출한 것일까?

그것은 세 번 연속된 질문이 베드로의 3회 연속 부인 사건을 직접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세 번의 부인(요18:17, 25, 27)과 세 번의 사랑 고백(요21:15, 16, 17)은 서로 대조적 평행을 이룬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이 세 번째로 반복될 때, 베드로는 주님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다. 주님께서는 실패한 제자 베드로가 스스로의 실패를 직면하고 시인함으로써 진정한 회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고 계신 것이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스스로의 실패를 간과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를 직면케 하신다. 지난 일이니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자고 하지 않으신다. 도리어 강력한 내적 통증까지 수반하는 적나라한 직면의 과정을 통해 처참히 실패한 제자를 회복시켜 주님의 양을 돌보는 목자로 그리고 충성된 제자로 세우신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실패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다. 그러한 적나라한 직면 없이는 참된 회복도 없기에 주님께서 베드로가 스스로의 실패를 있는 그대로 직면케 하신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죄의 용서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과 실패를 회피하거나 적당히 덮어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참된 인정 없이 구주의 십자가를 겸손히 의지하는 일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 실패에 대한 진정한 시인 없이 참된 회복이란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주신 주님은 베드로 스스로가 변절자요 배신자였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신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스스로의 실패를 처절하리만큼 있는 그대로 직면케 하심은 결코 이 제자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다. 그를 유기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 도리어 그를 다시 세우려 하심이다. 그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실패를 있는 그대로 직면케 하심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심이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받으셨다(요1:29). 이를 이해한다면, 주님의 제자들은 (비록 심한 내적 통증을 피할 수 없는 경우라도) 스스로의 실패를 그대로 직면해야 한다. 자신의 죄를, 실수를,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직면의 과정에서 느껴지는 내적 진통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회복의 전조일는지 모른다. 적어도 이날 아침 베드로에겐 그랬다.

"세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심한 내적 진통을 느끼며)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21:17)"

〈계속〉


## 농장, 기도원, 고급주택

* 71만불의 가치---- 단 41만불
* 고급주택 3Bedroom, 3 Bathroom
* 매달 3,000불의 매실 수익
* 우물 7만불의 가치 2개 있음
* 큰 도로 옆에 있어 편리함
* 유명한 구름이 머무는 곳 근처
* 제주도 날씨와 같아 한국에서 나는 과일,야채 100%재배 가능

연락처 : T.(213)298-8384 James Nam
주소 : 1232 Westchester Pl, Los Angeles , CA 90019


● 제임스 구 교수의 기독경영 칼럼 - 4

# 누구를 어떻게 섬길까

제 임 스 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I. 섬기는 자로서의 경영자**

경영에 대한 성경적인 접근법과 세속적인 접근법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세속적인 경영 모델에서 권력은 보통 경영자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적인 경영 모델에서는 경영자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권력을 행사한다. 권력은 도덕중립적인 것이어서 그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에 의해 부패하게 되고 그들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한다. 경영에 있어서 '권력 행사의 세속적인 모델'과 '성경적 모델'은 어떻게 다를까?

**세속적 모델**

경영자는 의사 결정권을 독점하려고 한다.
경영자는 계획을 수립하고 하급자를 그 계획을 수행하는데 이용한다.
경영자는 자신에게 돌아올 인정과 보상을 추구한다.
경영자는 자기와 대립하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만을 밀고 나가려 한다.
경영자는 하급자들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성경적 모델**

경영자는 의사 결정권을 기꺼이 나누어 준다.
경영자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하급자나 다른 사람들을 참가시키는데 열성적이다.
경영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추구한다.
경영자는 자기 하급자들의 아이디어를 증진시키고 장려하며,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가 자기 것보다 나을 경우,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영자는 하급자들을 조직의 가장 가치 있는 자원으로 본다.

**II. 성경적 경영 원리의 적용**

마20:20-28은 경영자가 취해야 할 목적을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들의 필요를 섬길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는 개념에 입각한 경영 철학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영자가 섬겨야 하는 4가지 집단은 (1)부하 직원들 (2)상사들 (3)동료들 (4)고객들이다.

**1. 부하 직원**

부하 직원들의 리더와 경영자로서 당신의 주된 역할은 그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섬기는 것이다.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그들을 섬기기에 앞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부하 직원들과 개인적으로 혹은 소집단으로 만나서 그들의 직무와 관련된 필요를 좀더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충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당신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그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2. 상사**

당신은 상사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고 섬겨야 한다.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매주 간부회의에 참석한다. 그러나 그러한 회의에서의 만남 이외에, 어떻게 해야 상사의 필요를 좀더 잘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라는 목적을 가지고 상사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3. 동료**

우리는 너무나 자주 동료들을 경쟁자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동료들을 섬긴다는 것이 가장 어렵게 여겨진다. 동료들을 돕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성경적 경영 철학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들의 직무와 관련해 필요하면 당신이 최선을 다해 도와주기 원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라. 그러나 결코 보답을 기대하지 말라. 그렇지만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그들의 도움을 거절하지 말라. 그들에게도 남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일에 대한 가치를 배우게 해 주어야 한다.

**4. 고객**

당신의 직무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라. 당신이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당신의 고객과 손님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야 한다. 고객들의 요구는 자주 변화한다. 그러한 욕구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의 자발성과 변화하는 욕구를 알아내고자 하는 노력에 정비례 할 것이다. 〈계속〉


## 미술 서양화 3개월 특수반

**초보라도 3개월 연수하면**
최소 100불 상당의 그림을
시장에 팔아도 잘 팔릴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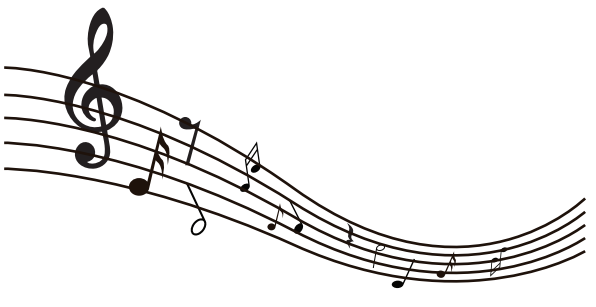
**수업시간 : 매주 2시간**
**수강료 : 매달 $200불**
**(재료비 포함)**

* 국제 상도 받은 40년의 경력
* www.amazon.com 에서 유일하게 판매되는 서양화가 James Nam Suk Hoon!!

## 남석훈 예술의 집
(기타, 피아노, 드럼 3개월 속성반 모집)

이봉조 악단에서부터 수 십년의
재즈 밴드로 활약하며 얻은
많은 경험의 노하우로
초보자도 3개월, 1주에 1시간 이면
복음성가, 찬송가의 훌륭한 반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로택스 호텔 근처)

**수강료 : 월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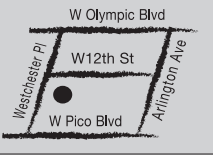
## 평화통일 선교회

무력으로 통일을 하느냐
기독교 정신으로 평화 통일을 하느냐
평화통일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평신도의 간증이 있으시면
간증 부탁 드립니다.

**통일학 개론 강의(매주 OPEN)**
강사 : 남석훈 피아니트 선교사
사역 : 상담학 박사 에스터 남 선교사

**미주 통일 연구원 한민족 연합회**
총재 : 남 석 훈

연락처 : T.(213)298-8384 James Nam
주소 : 1232 Westchester Pl, Los Angeles, CA 90019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 북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 도서

### 로이스 말씀학교

남금조 | 생명의말씀사 | 96쪽

실버 세대가 손주 세대의 신앙 교육을 돕는 과정을 담았다. 갈수록 조부모 세대의 양육 사례가 많아지는 가운데, 손주의 눈높이에 맞추어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 책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레 조부모의 믿음이 손주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물려줄 가장 큰 재산은, 바로 믿음이다.

### 한국 기독교청년회 운동사

전택부 | 홍성사 | 487쪽

한국 YMCA의 태동기인 구한말에서 일제시대를 거쳐 광복에 이르는 반세기 동안의 발자취를 풍성히 담고 있다. 항일투쟁과 민중계몽, 농촌운동, 민족 교회 육성 등을 거친 YMCA의 길은 격변기 현대사 속 시대의 부름에 호응하여 역사적 사명을 다하며 걸어온 길이었다. 저자의 선집을 다시 발간하고 있는 출판사는 〈토박이 신앙산맥〉에 이어 이 책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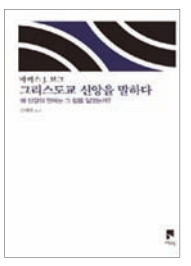
### 성경 인물 열전

김문훈 | 두란노 | 312쪽

인기리에 방영된 해당 프로그램을 동명의 책으로 엮었다. 23명의 신구약 성경 인물들의 삶과 신앙을 재조명하여, 성경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각 인물을 통해 한 번에 꿰어주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성경이 익숙한 이들에게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인물들을 통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

마커스 J. 보그 | 김태현 역 | 비아 | 344쪽




개정판으로 나온 그리스도교 신앙 또는 언어 입문서. 구원, 희생, 예수, 하나님, 죄, 용서, 자비, 거듭남, 재림, 성서, 주기도 등 자주 사용되지만 점점 게토화돼 가는 신앙 용어들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왜곡돼 있는지 살피면서,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성경이 쓰였을 당시, 그리고 그리스도교 전통 가운데 위 언어들이 어떠한 의미로 쓰여왔는지 분석하고 있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 시골 목사의 '촌스럽지 않은' 세련된 이야기

전라남도 순천은 한국의 최남단에 가까이 위치해 있지만, 일찍이 교육과 문화가 발달하였다. 순천은 특히 많은 문학도들을 탄생시켰는데, 아마도 순천만의 자연 생태계가 그들에게 좋은 심상과 창조성을 불러 일으켰으리라고 생각해 본다.

이 순천만에는 한 해에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려온다. 순천만의 자연경관은 세계의 어느 곳과 비교해 봐도 손색이 없다. 이런 순천만을 끼고 마을의 언덕 위에 우뚝 솟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책의 저자 공학섭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대대교회다.

대대교회는 농어촌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작은 시골교회가 아니다. 대대교회는 거의 100여 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30여 년 전 새로 부임해온 공학섭 목사는 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그는 순천만의 자연 생태계를 지키는 일을 선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도서관과 아동센터 및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 그가 〈글을 통한 목회〉와 〈시골목사 이야기〉라는 두 권의 책을 연달아 내놓았다. 그 중에서도 〈시골목사 이야기〉라는 책은 공학섭 목사가 매 주간 교회 주보에 실었던 칼럼들을 엮은 것인데, 이 책을 통해 저자의 사상과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시골목사 이야기
공학섭 | 토라 | 407쪽

이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우선은 이 책을 집필한 공 목사가 시골교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매우 깨어있는 분이라는 사실이다. 사물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예사롭지 않다.

그의 글에는 농어촌 목회자들이 보통 가질 수 있는 편견이나 진부함이 없다. 그는 매우 넓은 시야와 이해력을 가지고 있으며, 판단도 깊이가 있고 무엇보다 건강하다. 그의 칼럼에는 하나같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안목이 내재되어 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저자가 일반 목회자들과는 달리 글솜씨가 매우 뛰어나고 문체가 유려하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문단에 등단하기도 했으며, 기독교계 신문사에서 한때 기자로도 활동했다. 아울러, 기독신문 등을 비롯한 많은 교계지에 글을 연재하기도 했다.

이런 그였기에 바쁜 와중에도 한 주도 빠짐없이 주옥같은 칼럼들을 주보에 실을 수 있었을 것이다. 책 제목이 '시골목사 이야기'지만 전혀 '촌스럽지' 않은 저자의 세련된 글솜씨와 사상에 독자들 역시 놀라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설교집이 아니다. 목회자의 통상적인 훈계나 지루한 설득이 없다. 에피소드 중심의 짤막한 글들이라 쉽게 읽을 수 있으며, 매일 읽고 묵상하는 큐티용 도서로도 적합하다. 짧지만 강렬해서 기억에 많이 남는다.

채천석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발행인

#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 깊은 영성을 기독교 문학에 담아

## [기독교 문학을 만나다 15] 소설가들의 소설가

"감동은 논리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지름길로 빠르게 달려와서 우리를 끌어안아 버린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감동의 정체를 논리적으로 해명하지 못한다. 논리를 초월하기 때문이다(223쪽)."

이 책을 어떻게 설명할까 궁리하면서 책을 뒤척이다 줄을 친 수많은 부분 중 이 대목에서 "이것이다!" 싶었습니다. 마치 '나의 글이 이런 글이다!'라고 하는 듯합니다. 그것이 의도했건 그렇지 않았건, 이 책의 총평은 윗글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온다고 했을 때 저는 아주 많이 놀랐습니다. '소설가들의 소설가'이자, 각종 문학상이란 문학상은 다 받은 작가의 책이 일반 출판사가 아니라 기독교 출판사(복있는사람)에서 나온다는 것이 놀라우면서 반가웠습니다.

물론, 이 책은 신작이 아니라 1991년에 나온 〈향기로운 세상〉의 개정증보판입니다. 무려 26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렇지만 읽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 그냥 '새 책이다' 하며 읽는 게 나을 겁니다. 제가 누누이 밝히지만, 책을 읽기 전의 여러 정보와 일방적인 비난과 찬사의 글은 책을 읽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 제목이 어디선가 본 것 같습니다. 생텍쥐페리의 유명한 어른 동화 〈어린 왕자〉에서 '사막이 아름다운 건 그 어디엔가 샘이 숨어 있어서 그래'에서 가져온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230쪽에서도 언급합니다). 기독교 도서인데 성경 구절이 아닌, 일반 문학 도서의 글귀를 가져와 제목으로 삼은 것으로도 봐서, 이 책은 기독교 도서지만 일반 문학을 포함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러나 이 책이 기독교 도서라는 건 매 장(章)을 열 때 성경 구절로 시작하여, 성경 구절에 맞는 이야기를 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장마다 쓰이는 예화와 비유, 인용 모두가 처음에 보인 성경구절에 부합하는 통일성을 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독자층을 제한시킬 수 있지만, 이 책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밝힌다는 점에서 아주 좋습니다.

이 책의 분류는 에세이라 할 수 있고, 기독교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 에세이'라 하는 게 정확합니다. 에세이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우선은 사물과 현상에 대한 관찰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감성을 기반으로 한 좋은 글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신앙'을 덧붙이려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겸비해야 합니다.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
이승우 | 복있는사람 | 280쪽

이 책은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문학계가 인정한 에세이스트(수필가)로서의 글 실력에 신학대학을 나온 작가의 이력은 책에 신뢰를 갖게 합니다.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하지만 "작가가 문학상을 받았는지, 유명한지 나는 모른다. 괜한 기대감을 주지 마라" 할 수 있습니다. 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작가에 대해 모르고 읽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논리를 초월한 감동'이 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도서 외에 일반 책은 읽지 않은 분들이라면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다른 기독교 서적과는 다른 깊이와 현란하면서 유려한 글 솜씨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문장을 구사하는 능력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강해서나 설교문, 간증서에 보이는 직설적이고 간단명료한 글이 아니라, 한 문장 안에 다층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읽고 나면 곰곰이 생각하게 합니다. 한 번 읽고 나서 '이것이다' 해도, 다시 생각하면 그것이 아닐 수 있어 줄을 치게 되고, 줄을 친 부분을 다시 읽을 때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읽었어도 읽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건 읽는 본인이 알 겁니다. '내가 읽은 것이 읽은 것이 맞나?' 한 권을 읽었지만 몇 권을 읽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이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글을 비비꼬거나 어렵게 쓴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문학'이란 시각에서 보자면, 저는 오히려 일반 대중음악계에서 최고의 연주자로 손꼽히는 기타리스트 함춘호의 연주를 찬송가 앨범에서 들은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기독교 도서에서 이런 문학성 짙은 글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천재라 칭송하는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작가 '이어령'의 글과 흡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 수필로만 봤을 때 차이가 있는 것은 세상적인 넓이 면에선 이어령이 낫지만, 신앙적인 깊이 면에선 이 책의 저자 이승우가 더 낫다고 봅니다.

이 책은 개정증보판답게 책의 내용을 잘 담은 예쁜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고, 복있는사람 출판사 특유의 가독력을 높이는 편집이 완독하는데 무리하지 않게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다 읽고 나서 드는 첫 번째 생각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어떤 류의 글을 쓴다 해도 티가 나는구나!'입니다. 위에서 비유로 든 기타리스트 함춘호를 다시 설명하자면,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은 발라드를 연주하건, 블루스를 연주하건, 댄스 음악을 연주하건 실력이 어디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책의 장점으로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건, 작가의 지식이 과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작가는 많은 참고도서를 나열하며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성경을 지식의 하나의 방편으로 삼거나 지나치게 현란한 글과 많은 비유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모르게 하는 책도 있는데, 이 책은 그 적정 수위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중심에 놓고 주제에 벗어나지 않는 예화와 책들을 인용합니다.

오랜만에 좋은 에세이를 만났습니다. 기독교 도서를 사랑하고 기독교 문학을 사랑하는 제 입장에서 일반 베스트셀러에 스님이나 신부님, 수녀님들의 책은 곧잘 올라오는데 기독교 저자의 도서는 그렇지 못한 현실에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내 기독교에 대한 낮은 인식을 봤을 때, 기독교 도서 장르 중에서 일반 베스트셀러에 오를 수 있는 건 문학밖에 없다고 봅니다.

기독교 도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좋은 에세이가 많이 나와주고 사 주어 1급 문학가들이 기독교 도서 시장에 많이 등장한다면, 근시일 내에 일반 베스트셀러에도 올라가 기독교 도서의 폭을 넓히고, 일반인들이 갖는 기독교 도서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가지며, 나아가 기독교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데 첨병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성구 서평가

# 역사에 새겨진 칼빈의 심장 순수 복음의 정수

## 프랑스 신앙고백 해설

프랑스 신앙고백 해설
장대선 | 세움북스 | 432쪽

1517년 유럽,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 루터, 비텐베르크 예배당, 95개 반박문, 면죄부 등이다. 그런데 1517년 유럽에는 여러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칼빈하면 무엇을 생각할까? 기독교 강요, 제네바, 장로교, 세르베투스 등일 것이다.

루터의 영향력과 칼빈의 영향력은 16세기 유럽에서 결정적이었다. 서평자는 루터의 영향력은 정치력과 결부되어 있고, 칼빈의 영향력은 바른 신학과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칼빈파들은 끊임없이 기독교 정수로 정권을 유지하고 교회 세우는 것을 추구했다. 좀 더 과격하게 바른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해 세속 정권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런데 21세기 유럽에 칼빈의 가르침 흔적은 많이 남아있지 않다. 순수 복음이 보존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역사에서 배울 수 있다. 칼빈 계열은 바른 교회 세움을 위해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다. 루터파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기본으로 하는데 반해, 칼빈파는 각 지역마다 각각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다. 1, 2 스위스 신앙고백서, 제네바 요리문답, 프랑스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경 등이다.

많은 신앙고백서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영향력이 거의 사라진 신앙고백서가 '프랑스 신앙고백서(1559년)'이다. 이는 칼빈(1509-1564)이 살아 있을 때 작성된 신앙고백서이다.

본 저술에서 약간의 아쉬움은 프랑스를 사랑한 칼빈의 심정, 프랑스 역사에 대한 대략 등을 기술하는 부분이 없는 것이다. 프랑스 신앙고백서가 얼마나 순수하고 가슴 아픈 문서인지 독자들이 잘 알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런 이해는 프랑스 위그노 역사까지 탐구해야 한다.

프랑스 신앙고백서는 그냥 단순한 신앙고백서가 아니고, 프랑스를 향한 칼빈의 심장과 프랑스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한 위그노들의 갈망이 들어 있다. 그래서 그 내용 한 땀 한 땀이 더 감동적이고 가치가 있다. 그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매우 담백하고 진솔하게 표현한 저자 장대선 목사에게 감사를 표현한다.

프랑스는 1562-1598년까지 위그노 전쟁을 치렀고, 위그노 앙리 4세가 구교로 전향하면서 낭트 칙령(Edict of Nantes)을 발표하고 전쟁을 종식했다. 그러나 1685년 루이 14세는 퐁텐블로 칙령(Edict of Fontainebleau)으로 낭트 칙령을 폐지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위그노 박해를 진행했고, 위그노들은 유럽 각지로 흩어졌다. 프랑스 신앙고백서의 순수한 복음과 로마가톨릭이 신교를 박해한 역사의 절정에 프랑스가 있다. 그 순수 복음의 가치, 프랑스 신앙고백서를 안고 프랑스 개혁 교회가 역사에서 사라졌다.

프랑스 개혁교회 역사를 보면 순수 복음, 로마 가톨릭의 잔혹성, 하나님의 섭리 등을 매우 잘 볼 수 있다. 그 시작을 장대선 목사가 〈프랑스 신앙고백서〉를 해설함으로 열어준 것 같다. 우리에게 귀한 신앙고백서를 제공해준 것에 큰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풍성한 유럽 기독교 이해를 갖기를 기대한다.

〈프랑스 신앙고백 해설〉은 경어체로 집필되어 본문 그대로 낭독할 수 있다. 40조 문항을 매주 강단에서 '저술 낭독 설교'로 활용해도 매우 은혜롭겠다고 생각한다. 매우 간결하고 용이하게 문장을 구성했고, 풍성한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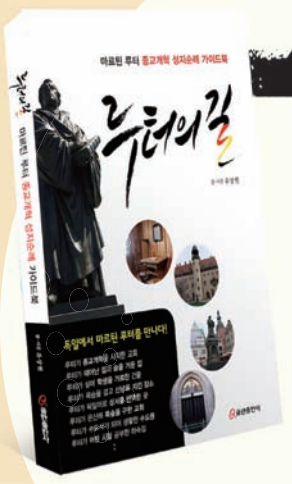
고경태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운영위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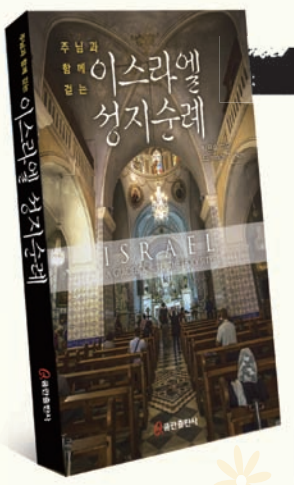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성지순례 안내서**



**루터의 길**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성지순례 가이드북
루터는 '오직 성서'를 부르짖었다.
이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외침이기도 하다.
루터가 걸었던 그 특별한 길을 뒤따르는 당신에게
이 책은 길의 방향을 알려주고 길에 새겨진 발자국을 설명해주는
'안내자'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 특별한 길에
남은 루터의 흔적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순례자가 될 것이다.

유상현 지음 / 240면 / 15,000원



**주님과 함께 걷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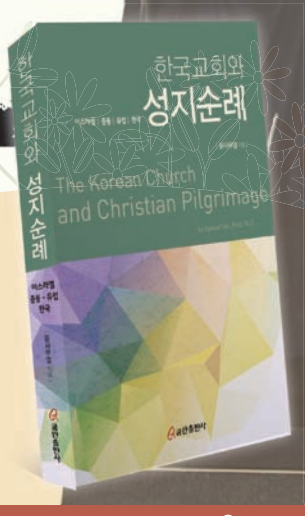
필자는 오클라호마 대학 교수로서 미국 연방 항소법원 판사인
딸 루시고 판사와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 자료와 사진을 정리하였고
단순한 여행기가 아닌 기독교 성지 연구와
생생한 역사가 담긴 현장을 컬러 사진으로 담고 있기에
성지 순례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탁은숙 지음 / 328면 / 20,000원

**양화진 순례길**

한국과 한국인을 사랑했던 이방인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여수 애양원에서 서울 양화진까지 27일 동안 680km를 걸었다.
혼자서 걸어간 그 길은 삶을 되돌아보는 깨우침의 시간이었고,
주님과의 동행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기행문이자 선교사들의 사역 기록이기도 한 이 책은
스페인의 산티아고 가는 길과도 같은 한국의 순례길 여정을 담았다.

담양 지음 / 328면 / 20,000원



**한국교회와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학문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영적 재충전,
주님과의 사랑 회복, 치유의 은혜의 기회가 된다.
성경 말씀이 기록된 장소를 찾아가서 당시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고 그곳의 기후와 분위기를 직접 느끼면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훨씬 넓어진다.
이스라엘, 중동, 유럽, 한국을 다니며 조사 연구한 것으로
성지순례에 대한 풍부한 자료가 실려 있다.

윤사무엘 지음 / 496면 / 19,000원

한글인터넷주소 쿰란, 쿰란출판사 홈페이지 www.qumran.co.kr 주소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6 ☎ 747-1004 쿰란출판사

A newspaper of reconciliation led by the Holy Spirit

# CHRISTIANITY DAILY

**SUBSCRIPTIONS:**
Don't miss out on the news!
To subscribe,
please e-mail us at
christianitydaily@gmail.com.

Tel. 213-739-0403 www.christianitydaily.com THURSDAY, May 11, 2017 Vol. 100

About 250 gathered at the prayer service on May 4, 2017 at Junimseun Church in observance of the National Day of Prayer.

## *Korean Church Community Intercedes for the Nation*

BY JUNHYEONG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The Korean church community in Southern California gathered at Junimseun Church on May 4 to observe the National Day of Prayer (NDOP). An estimated 47,000 gatherings took place across the nation in observance of the 66th National Day of Prayer, under the theme, "For Your Great Name's Sake! Hear Us, Forgive Us, Heal Us!"

Leaders of the Korean church community led prayers during the two-hour prayer service which began at 7:30 PM.

The service was divided into three parts, with the first focusing on praying for repentance and revival in America, and for the church and culture. The second portion focused on praying for America's leaders: the President, Vice President, members of the Cabinet, the Supreme Court justices, members of Congress, and military leaders. Leaders of Los Angeles and California were also prayed for during the second portion. The third portion of the service focused on praying for Korea: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s, the nation's security, re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e issue of the nuclear weapons program in North Korea, and the Korean church.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Orange County's Rev. Ki-Dong Kim, who led prayers for the U.S. President, asked that President Trump would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 a leader that fulfills God's will." Rev. Ki-Hyung Han, the senior pastor of LA Dong San Church, added, "President Trump is fulfilling the restoration of religious freedom in America. Many of those in the administration are also Christian."

"Let us not only pray for the current leader of America, but let us also pray that our children would also become leaders of this nation," Han added.

With the overlapping issues of pressures from the U.S. regarding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threats to security within Korea, and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the desperation in the prayers was all the more evident. Some 250 gathered at this service and prayed fervently with raised hands and voices that God would protect and restore America and Korea.

## Second Korean American University Faculty Detained in North Korea

*Kim Hak-Song of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detained; details of arrest unclear*

Just over two weeks after Korean American Tony Kim was detained in North Korea, the Kim regime has detained yet another Korean American, named Kim Hak-Song.

Kim Hak-Song, who was detained on May 6, was also an employee of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UST), where Tony Kim had been teaching for a month before he was detained.

According to a statement from the university, Kim Hak-Song was working at PUST's agricultural farm.

He was arrested for allegedly carrying out "hostile criminal acts" against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regime's Korean Central News Agency.

No other details have been released regarding his detainment.

Both PUST and the U.S. State Department said that they are aware Kim has been arrested.

"We understand that this detention is related to an investigation into matters that are not connected in any way with the work of PUST. Therefore, we cannot comment on anything," PUST said in an email to NBC News.

"Life on campus and the teaching at PUST is continuing as normal," said PUST.

"When a U.S. citizen is reported to be detained in North Korea, we work with the Swedish Embassy in Pyongyang, which serves as the United States' Protecting Power in North Korea," a spokesperson from the State Department said to CNN. "Due to privacy considerations, we have no further comment."

PUST is a private university that has Christian roots, and is funded mostly by Christians outside of the country, reports say. According to NBC News, the former president of PUST, James Kim, has been known as an evangelical Christian and missionary.

Kim Hak-Song was born in China, received university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became a U.S. citizen in the 2000s.

Along with Kim Hak-Song and Tony Kim, two other U.S. citizens are currently detained in North Korea: Kim Dong-Chul, a businessman who was sentenced to 10 years of hard labor; and Otto Warmbier, a University of Virginia student who was sentenced to 15 years of hard labor.

Korean Canadian pastor Hyeon Soo Lim has also been detained in North Korea since January of 2015. Several Korean churches in North America have held prayer gatherings on his behalf.

## All Nations Church: Taking Steps for the Next Generation

All Nations Church in Lake View Terrace, CA is undergoing yet another transform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After Rev. Jinso Yoo, who had successfully established a rare 'co-lead pastor system,' left to Korea, Rev. Tae Kim has been leading the congregation on his own since October 23. Six months later, however, as Rev. Michael Lee was inaugurated into the lead pastoral role in the English ministry (also called All Nations Community Church) on April 23, the church has taken on yet another look.

Previously, the co-lead pastor system at ANC consisted of two pastors who did not take on authoritative and submissive roles, but rather, equal ones. Yoo, who is a 1st generation Korean, oversaw and led the church as a whole, while Kim, a 1.5 generation Korean American, focused mostly on the 2nd generation Korean American members.

But during the six years that the two worked together, Kim also ministered to the 1st generation Korean members in the church, preaching often in the Korean language services. In actuality, the two ministered to the members of the church together, without much of a barrier between the 1st and 2nd generations.

Thanks to the former system, the church was able to avoid any significant confusion even after Yoo — who had planted and significantly cultivated the church — had left.

This time, ANC appointed Michael Lee as the lead pastor of ANCC. Lee, who is a 2nd generation Korean American, has already worked together with Kim for three years. With Lee's inauguration, the church — which was once led by a 1st generation and 1.5 generation partnership — is now led by a partnership between the 1.5 generation and 2nd generation. The personality of the leadership structure also changed a bit, from a co-pastoring personality, to a team pastoring one. While Kim is leading the church as a whole, Lee is heading the English ministry.

"I am the senior pastor, but it's more accurate to say we're doing a team ministry where we build up each other's strengths and complement each other's weaknesses," said Kim. "All of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needed is given to Pastor Michael in order for him to carry out the ministry that EM really needs."

As for whether the EM would become completely independent in the future, Kim said, "We are moving in that direction, but our congregation would need more time to consider that."

"There were a lot of unknowns, but I trusted the Lord that he was doing the right thing," Kim said regarding his transition into a single senior leadership role.

Rev. Michael Lee (left) was inaugurated as the lead pastor for the English ministry of All Nations Church on April 23, 2017. Rev. Tae Kim (right) serves as the senior pastor of ANC.

"What I would love for our church, for both of our congregations, is not the gospel talked and preached church, but the gospel applied church, right here in this place," said Kim.

"God has been good to our church," Kim said. "There's momentum, and that's only by God's grace."

## *ISAAC Gala Features Young Artists: 'We Must Rediscover How Arts Will Be Used'*

Five young poets and musicians graced the Echo Park area of Los Angeles with personal stories, graceful tones, and high-hitting notes on Thursday evening as they performed at ISAAC's 11th annual Gala ArtFest.

ISAAC (Innovative Space for Asian American Christianity) is known for the intellectual and experiential ways through which it encourages Christians to explore the intersection of their faith and culture, as they have organized numerous symposia, hosted interns at differing ethnic contexts, and taken learners to historical sites, among other efforts.

All the while, music and the arts have consistently been a part of ISAAC's events, including at its galas and symposia.

Dr. Young Lee Hertig, the executive director of ISAAC, said she has wanted to platform these artists because the arts are a significant part of any movement or exploration of faith and culture.

"Without the folk artists and songwriters, the Civil Rights Movement wouldn't have been the same," said Lee Hertig. "So I've just been dreaming of how I can platform these talented young artists as much as I can."

The ArtFest featured performances from singer-songwriter duo Villa, spoken word artists Kevin Velez and Jacqulyn Whang, and singer-songwriter Priska.

The pieces ranged in content, from vulnerable musings on love, to lessons learned from teaching, to confessions of faith, to stories about living as an ethnic minority in the U.S.

This year's ArtFest also featured remarks from Dr. Sunny Kang, head pastor of St. Luke's Presbyterian Church.

Kang emphasized the need to incorporate more of the arts in churches today. Just as the arts in the Middle Ages -- such as stained glass windows -- were among the main ways through which individuals expressed their faith, the arts still have significant roles to play in churches today, Kang said, if churches would provide that space.

"Churches are doing old methods and not adjusting," Kang said.

ISAAC hosted its 11th Gala ArtFest at the Cathedral Center of St. Paul on May 4, during which five musicians and poets performed.

"We must rediscover how the arts will be used."

Meanwhile, the ArtFest concluded ISAAC's second Ecumenical Asian North American Women (EANAW) Retreat, which took place from May 2 to 4 at the Cathedral Center of St. Paul.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2:4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 Trump's Executive Order on Religious Liberty: Religious Leaders 'Appreciate the Gesture,' But Many Say It's Not Enough

President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on Thursday that claimed to "vigorously enforce Federal law's robust protections for religious freedom."

The order, titled the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Promoting Free Speech and Religious Liberty,' requires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o "not take any adverse action" against those who speak out about "moral or political issues from a religious perspective." It also requires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and the Secretary of Labor to "consider issuing amended regulations,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to address conscience-based objections" to the Obamacare mandate requiring employers to provide coverage for birth control.

Though the order aimed to fulfill Trump's campaign promise to repeal the Johnson Amendment of 1954, which prohibits tax-exempt organizations from endorsing or actively opposing political candidates, a recent study has shown that most Americans — and Christians — do not believe religious leaders should endorse or oppose political candidates from the pulpit.

A LifeWay Research study showed that almost 80 percent of Americans disagreed with the idea that "it is appropriate for pastors to publicly endorse political candidates during a church service." Only 20 percent of Protestants, 13 percent of Catholics, and 25 percent of evangelicals supported the idea.

Experts have also said that the executive order does little to actually change the existing Johnson Amendment.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 did not ease the current restrictions on political activity by religious organizations," Lawrence Noble, the general counsel of the Campaign Legal Center, was quoted as saying by CNN. "The executive order allows the IRS to restrict the activity it currently considers political, but prohibits the IRS from expanding the restrictions to cover activity not covered before the executive order."

President Trump addresses a joint session of Congress in February 2017. (Photo: Office of the Speaker / Public Domain)

Since the signing of the executive order, many religious leaders have responded with disappointment that the bill has offered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protection from penalties when they are acting on their religious conscience.

Still, some have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step taken by the administration.

"After years of open hostility toward religious institutions and conscience from the previous administration, this executive order is a welcome change in direction toward people of faith from the White House," Russell Moore, president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s Ethics &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told the Baptist Press.

Alliance Defending Freedom President Michael Farris said on Thursday that though he appreciates "the spirit of today's gesture," the executive order is not enough to provide real protections. Giving "vague instructions to federal agencies" allow them "wiggle room to ignore that gesture, regardless of the spirit in which it was intended," Farris said.

"We strongly encourage the president to see his campaign promise through to completion and to ensure that all Americans—no matter where they live or what their occupation is—enjoy the freedom to peacefully live and work consistent with their convictions without fear of government punishment," said Gregory Baylor, senior counsel of Alliance Defending Freedom.

Meanwhile, the executive order was signed on the same day that many across the nation observed the National Day of Prayer, during which prayers for the nation and its leaders were offered up at an estimated tens of thousands of gatherings.

# Jakarta's Christian Governor Found Guilty of Blasphemy, Sentenced to Two Years in Jail

Basuki "Ahok" Purnama, the incumbent Christian and ethnic Chinese governor of Indonesia's capital Jakarta, was found guilty of committing blasphemy by an Indonesian Court on Tuesday, May 9, raising concerns about religious freedom in the country.

During the court hearing on Tuesday, head judge Dwiarso Budi Santiarto said Purnama was "found to have legitimately and convincingly conducted a criminal act of blasphemy," to which the five-judge panel voted unanimously.

"As part of a religious society, the defendant should be careful to not use words with negative connotations regarding the symbols of religions, including the religion of the defendant himself," Santiarto said.

Purnama has been sentenced to two years in jail, and until his term as governor officially ends in October, Deputy Governor Djarot Saiful Hidayat will serve as the acting governor of Jakarta. Purnama's jail sentence began on Tuesday, as he was taken to a prison in East Jakarta after the court decision was made.

Purnama's lawyer expressed that he plans to appeal the case.

Purnama was first accused of blasphemy in November of 2016. In response to some who said that the Quran forbids Muslims from voting for non-Muslims, Purnama had said that politicians are deceiving the people, a comment which was distributed and edited via a video that soon went viral.

Hard-line conservatives said his comments were offensive and that he insulted the Quran.

Though Purnama ran for re-election, he conceded defeat last month to Anies Baswedan, the former education and culture minister. Analysts have said that the trial against Purnama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lection results.

Human rights activists expressed concern that the ruling is an alarming sign for religious minorities in the country.

"It's a sad day, and it's frightening. If the governor of Indonesia's largest and most complex city, and who is an ally of the Indonesian president, can be brought down and humiliated this way, what will happen to normal Indonesian citizens?" Andreas Harsono, an Indonesian researcher at the Human Rights Watch, told the New York Times. Purnama is known to have close ties with Indonesia's current president, Joko Widodo.

(Photo: Government of the Province of Jakarta)

Benedict Rogers, the East Asia team leader for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said that the ruling against Purnama represented "an outrageous miscarriage of Justice."

"It also represents a further, and severe, erosion of Indonesia's values of religious pluralism as set out in the Pancasila, the state ideology," Rogers went on.

"Indonesia's ability to hold itself up as an example of a moderate, tolerant, Muslim-majority democracy is further threatened and is now very questionable."

# Boko Haram Releases 82 Chibok School Girls In Return for Release of Prisoners

*More than three years since abduction, about 100 schoolgirls still in captivity*

The extremist group Boko Haram has released 82 school girls who have been captive for more than three years, Nigerian officials said on Saturday.

The girls were released after negotiations, according to reports, and the Nigerian government has released prisoners in return.

Though most reports say the number and other details of the prisoners were not disclosed, The Guardian has reported that five commanders were released.

The 82 women who were released were among more than 270 girls who were abducted at a school in Chibok, located in the northeastern part of Nigeria, in April of 2014. Since the abduction, some girls have escaped, and dozens have been released after negotiations. An estimated 100 are still captive.

"The President directed the security agencies to continue in earnest until all the Chibok girls have been released and reunited with their families," the Nigerian President Muhammadu Buhari's office said.

"I am very, very excited with this development," Yana Galang, whose daughter was among the 276 who were kidnapped, told CNN.

"I hope and pray that my daughter is among these released girls," Galang added.

The abduction of these school girls received much international public attention, as it sparked the social media campaign #BringBackOurGirls. However, Boko Haram, which has pledged allegiance to the Islamic State, is known to have abducted thousands others over the last eight years.

Buhari's spokesman said Buhari was thankful to "security agencies, the military, the Government of Switzerland,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and local and international NGOs" for their roles in securing the rescue of the 82 girls.

Boko Haram has existed as a militant group since the late 1990s. The Nigerian government estimates that its violent activities have caused tens of thousands to be killed, and hundreds of thousands to be displaced from their homes.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1:30 PM
Children's Ministry: 11 AM
Friday Worship: 7:30 PM
Dawn Prayers: 5:30 AM Tu~F; 6:30 AM Sat.
Pastor Won Lee
Gospel First Korean Baptist Church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 email : 8132gospelchurch@gamil.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1:45 PM
Pastor Mitchell Perez
The Home Church
19100 E. Killian Avenu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s: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 ynccla.org

# 아름다운 **대화기술**

**"말은 많은데 대화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교회 등에서 대화 부재와 대화의 비효능으로 인하여 겪는 부작용을 자주 보고 듣습니다. 대화는 인격과 인격이 상호 교류하는데 한 사람이 본래대로의 자신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또 본래대로의 상대방의 모습을 알려는 기능입니다. 자녀들의 문제, 많은 자살, 우리 주위에 만연하는 Stress, 여러 가지 신체적이지 않은 질병들 그리고 정신적 문제에 따르는 육체적 질병 등 이 모든 것이 피해 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름다운 대화 기술의 권위자이신 여천기 박사님과 여명미 박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반인반과 지도자 양성 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오니 오셔서 강의 들으시고 행복한 삶으로의 변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강의 주제

1. 하나님께 진 빚, 아름다운 대화기술
2. 장벽을 허무는 대화기술
3. 예수님 식 대화 기술
4. 대화 기술은 인간의 능력
5. 하나님이 쓰시는 실력자
6. 옥토마음 가꾸기
7. 기타 자기 관리
8. 대화문을 닫게 하는 언행습관
9. 우리세대의 대화 정서
10. 듣는 기술, 경청(귀담아 듣는) 기술
11. 대화습관
12. 말하기 기술
13. 심정 알아주기, 공감기술
14. "나 전달법" 내 마음(심정) 전달기술
15. 너 때문에 메시지(You-Message)
16. 인간관계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법 가이드
17. 심정표현과 감정표 사용
18. 지혜로운 질문기술
19. 격려하는 기술과 칭찬
20. 분노 표현 기술 Expression of Anger

**여천기** 박사
CHUN KEE RYU, M.D

- TEACHING APPOINTMENTS
  * Clinical Assistant Professor in Psychiatry, UCI Medical School.
  * Assistant Professor in Psychiatry in Residence, UCLA School of Medicine.
  * Instructor in Psychiatry, Chicago Medical School.
- COMMUNITY SERVICE AND ACTIVITIES
  * Provide extensive psychiatric education through lectures and presentations to Korean community groups, including churches, LIONS, women's groups, alumni groups, and senior citizen groups.
- HOSPITAL PRIVILEGES
  * Western Medical Center, Anaheim, California.
  * St. Joseph Hospital, Orange, California.
  * Western Medical Center, Santa Ana, California.
  * Santa Ana Psychiatric Hospital, Santa Ana, California.
  * Fountain Valley Hospital, Fountain Valley, California.

**여(김)명미** 박사
Myun g Mi Ryu, M.D

-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68년 도미
- 미국 가정주치의 1977/ 임상병리학 전문의
- 미국캘리포니아 푸른초장의 집설립: 이사장/소장 1993- 2000
- 가주신학대학원, 에반겔리아 대학 강의
- 미주 복음방송 GBC / Radio Seoul 1650AM Guest Speaker
- 미국캘리포니아 ABC상담 대화교육원 설립 2009, 대표
- 저서 "이런대화가 삶을 바꾼다(공저)
- 상담 교육가/ 초청강사
- 뇌 정신질환과 정신건강(Mental Illness Ministry)교육자
- 미국캘리포니아 NAMI Family to Family 강사
- 대화강사 훈련강사

## ▪대화 강좌_ 참가비 $30

**날짜** : 2017년 5월 16일(화)
**시간** : 오전 10:00 ~오후 1:00(주부, 평신도 누구나)
오후 2:00 ~ 오후 5:00(목회자, 사역자, 신학생 등)

## ▪지도자 양육 대화 강좌 - 20시간 수강을 마치신 분께 대화지도자 수료증 발급

**참가비** : $200(교재비, 점심식사 포함)
**일시(1차)** : 2017년 5월 25일(목) 오전10:00 ~오후 4:00
**일시(2차)** : 2017년 6월 1일(목) 오전10:00 ~오후 4:00
**일시(3차)** : 2017년 6월 8일(목) 오전10:00 ~오후 4:00
**일시(4차)** : 2017년 6월 15일(목) 오전10:00 ~오후 4:00
**장소** : 621 S. Virgil Ave. #260, Los Angeles, CA 90005
**등록 및 문의** : T.(213)434-1170

주관 : ABC 상담 대화 교육원 주최 : 기독일보

아름다운 **대화기술**